2019 활동가 이야기 주간

결과자료집

ACTIVIST STORY WEEK 2019

목 차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결과자료집을 발간하며 1

제1장 활동가이야기주간 소개 3

활동가이야기주간 안내 4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안내 7

이야기모임 등록을 위한 안내문 8

제2장 63개 활동가이야기모임 기록 11

서울지역 12

경기권 지역 60

충청권 지역 80

경상권 지역 102

전라권 지역 130

강원권 지역 170

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단체 기획프로그램 174

제3장 활동가이야기모임주최자 네트워크모임 기록 180

제4장 활동가 인터뷰 193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결과자료집을 발간하며]

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63개의 활동가이야기모임에 400여명의 활동가들의 참여한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활동가이야기주간〉은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활동을 통한 변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2018년 〈아름다운재단〉과 〈더이음〉이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삶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회 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한 활동가이야기캠프가 그 시작이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활동가들이 조직의 목적 사업과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하지만 정작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조직 운영, 활동 방식, 활동가로서의 삶과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2018년 4개 지역에서 시작한 이야기모임은 올해 전국적으로 63개의 모임에 4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서울에서 이야기모임 주최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명의 활동가들과 공동주최단체들은 활동가이야기주간2019를 회고하며 활동가들의 이야기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활동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일과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도 털어놓고, 좀 더 나은 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의 좋은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공유하는 이야기모임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활동가들이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분야, 방식의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다름을 공감하고 인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가이야기주간2019〉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이 결과자료집에 담았다. 자료집에는 지금 시기의 활동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2020년에도 활동가이야기주간은 계속될 것이다. 일주일간 주간행사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공동주최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이야기모임들을 계기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_ 조아신 (활동가이야기주간 총괄 / 더이음 상임활동가)

제 1 장

활동가이야기주간 소개

이 장에서는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를 위해 사전에 안내된 활동가이야기주간 취지와 모임 등록 안내, 모임주최자를 위한 FAQ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홈페이지 : activistweek.net)

활동가이야기주간 안내

활동가는 누구인가요?

직업으로서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직업 중 하나로, 개인적 관심사로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권과 환경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때로는 권력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지인을 설득하는 일,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일, 변화가 필요하다가 목소리를 내는 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가들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말, 글, 유인물, 사진,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꼭 비영리조직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조직에서 일하지만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활동가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과 조직,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이런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활동을 통한 변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부터 〈더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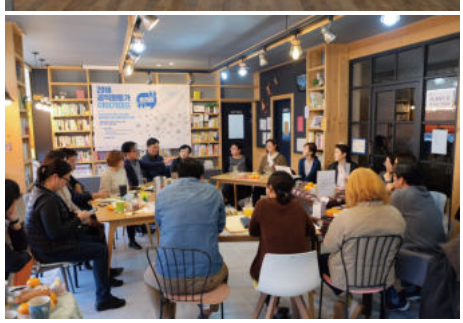
2016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은 지역 시민사회 현황과 활동가들의 삶과 일에 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더이음〉도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조직의 목적 사업과 지역 이슈가 아닌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생태계의 발전이나 조직 운영, 활동 방식, 활동가로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활동가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영리 조직 중심이었던 활동이 사회적 경제나 소셜 벤쳐와 같은 영리조직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조직 중심의 활동이 개인

과 자발적 네트워크 활동으로 확장되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세대 간의 문화 차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립적 개인이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조직의 높은 벽과 경직성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활동가들의 고민은 쌓여만 갑니다.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낯선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와 협력도 필요하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사람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로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블럭처럼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일과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도 털어놓고, 좀 더 나은 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의 좋은 사례, 실패한 사례 등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에 〈더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이 활동가이야기캠프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 2018년 천안, 춘천, 익산, 창원에서 개최된 활동가이야기캠프

2019년, 활동가이야기주간으로 찾아갑니다.

2018년 4개 지역에서 〈활동가이야기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연결의 필요성, 다양성의 중요함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분야, 방식의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다름을 공감하고 인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을 풀어줄 단서를 찾기도 하고, 든든한 우군을 만나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만남과 대화의 장이 전국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촉진하고,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전후로 활동가들의 다양한 만남과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 안내

활동가이야기주간은 1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입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각각 원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 분야, 방식의 차이도 확인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배우고, 활동의 고민을 풀어줄 단서를 찾고, 공감해주는 든든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자유로운 이야기모임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가 활동가이야기주간입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은 누가 주최하나요?

2018년 활동가이야기캠프는 더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이 기획-제안하고 4개 지역(천안, 익산, 춘천, 창원)의 단체가 공동주최했습니다. 2019년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취지에 동의하면서 기획, 준비, 실행 과정에 함께 할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공동주최단체들은 활동가이야기주간에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의 이야기모임 열릴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후에도 활동가 네트워크와 모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의논해나갈 예정입니다.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더 이음
- 민주주의기술학교
- 빠띠
- 사단법인 시민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아름다운 재단
- 인권재단 사람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 변화 사례를 나누는 이야기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11.4.월~8.금) 동안 본인이 활동가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주제와 형식을 정해서 이야기모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 등록을 위한 안내문

Q. 이야기모임은 어떤 주제로 운영하나요?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동가라는 주제 범위 아래 활동가들의 일, 생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활동가들을 둘러싼 환경, 조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활동가들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활동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은 활동가들의 일과 삶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활동 조직의 운영과 조직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 지역 내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모임이기를 기대합니다. 주제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단체의 사업 계획이나 지역 사회의 현안을 주제로 한 모임은 지양하기를 권유하고, 이 경우 모임을 진행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단체 혹은 활동가 한 명 당 한 개의 모임 등록만 가능합니다.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공동주최단체들이 제안한 아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 조직에 속하지 않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방법은?

Q. 모임 운영방식은 정해져있나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대화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대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10인 이내)의 모임을 권장합니다. 모임 운영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눠도 좋고, 각자의 활동 사례를 발표해도 좋고, 서로 인터뷰해도 좋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토론해도 좋습니다. 이야기모임 주최자에게 제공되는 〈이야기박스〉 안에는 참가자들 간의 자기소개, 대화 촉진 방법, 기록과 공유 방법 등에 관한 도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Q. 활동가이야기모임을 등록할 수 있는 활동가는 누구인가요?

직업으로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 여러 직업 중 하나로 활동가의 정체성

을 가진 사람,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 개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꼭 비영리조직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조직에서 일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에서 이야기하는 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과 조직,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Q. 모임등록 신청을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제와 방식이 활동가이야기주간 취지에 부합한다면 신청해주신 모든 이야기모임을 지원해드리고 싶고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모임 등록신청자가 너무 많거나 이야기모임이 한 지역에 집중될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모든 곳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같은 지역 내에서 비슷한 취지의 모임을 신청하신 경우 함께 운영하시기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9월 29일(일)까지 신청 모임에 한해서 1차 확정한 후 등록하고,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역, 주제 등을 고려하여 10월 13일(일)까지 등록신청해주신 곳을 검토하여 2차 등록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원 가능한 모임수를 고려하여 3차 접수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모임 주최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모임주최자는 모임을 개설하고 주최하는 사람입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 전체 홍보는 주관단체도 하지만 모임 주최자는 사람을 초대하거나 모집하는 일, 모임을 운영하고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과 공유를 위한 도구와 안내지는 추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모임을 주최하신 분들과의 네트워크 모임이 12월 12일~13일에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고 이 자리에 모임 주최자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활동가 이야기모임을 회고하고,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모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제 2 장

63개의 활동가이야기모임 기록

이 장에서는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가 진행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활동가이야기모임의 기록을 정리했다. 본 기록은 모임주최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록지와 회고지에 직접 작성해서 주최측에 제출한 것이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일부 문장과 단어를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수정하여 정리했다.

서울 지역

1. 진짜로 일할 맛 나는 조직이란 어떤 모습일까?
2. 일,놀이,사랑 - 활동가들에게 삶의 재미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3.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
4.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젠더-섹슈얼리티 활동을 위해 청년정책 활동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5. 앞으론 뭐해먹고 살지? - 활동가의 이직 고민
6. 활동가에게 이직, 활동하는 단체를 옮기는 것이란 무엇일까?
7. 조직에 속하지 않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인활동가를 위한 지원
8. 느슨한 네트워크의 지혜로운 운영 방안은?
9.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페미위키 운영팀원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은?
10. 운동사회 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과 연대 과정에서 발생한 활동가들의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11. 과로, 스트레스, 건강을 돌보면서 활동할 수는 없을까?
12.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13. 활동가,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내 마음 지키기
14.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 돌아보기
15. 비영리활동으로 인한 소진, 그리고 회복 그 이후

01 진짜로 일할 맛 나는 조직은 어떤 모습인가?

모임주최자	이은주(와이즈서클)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 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2		

무엇이 나를 아침에 그곳으로 출근하게 만드는가? 어떠한 기대가 있는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 나의 존재감을 실현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이 있으면 일할 맛 나는가? 이를 탐구해보기 위해 진행자가 미리 준비해 온 몇 가지 사례들과 질문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각기 자기 경험과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모아 적어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2019년 가을 활동가이야기주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활동가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마음이 설레면서 따뜻해졌던 것 같다. 그에 더하여 과연 어떤 주제로 활동가분들을 초대해야 의미도 있고 서로 간의 배움도 있을까 고민 끝에 '일할 맛 나는 조직'이란 표현을 이야기모임 제목에 담았다.

월요일 저녁, 퇴근 후 바쁘게 달려온 4명의 활동가와 나를 포함하여 총 5명이 의자를 놓고 원으로 둘러앉았다. 먼저 서로 간에 동의를 구한 것은 오늘 대화의 방식이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각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어떤 행동으로써 서로에게 존중을 보여줄지를 결정하였다.

우리 이렇게 대화해 보아요

1. 이야기 도구(토킹피스)를 가지고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동등한 발언권을 갖도록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여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말이 끝날 때까지 듣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충고나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 보류하고 듣습니다. (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호기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5. 질문이나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묻지 않고, 자신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질문과 생각이 떠올랐다고 전체를 향해 말합니다.
6. 침묵과 천천한 속도를 즐깁니다. 우리의 성찰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7. 사적인 이야기, 여기서만 공유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은 서로가 보호해주는 의미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기로 합니다.
8. 과정에서 감정이 서로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멈추고, 방금 각자의 말과 행동에 숨은 의도에 관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눕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일하는 조직은 무슨 맛이 나고, 왜 그런가요?'였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조직 분위기와 동시에 어떤 고민들을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두의 이야기에서 대부분들이 겪는 바쁨과 과한 일들, 소통이 어렵거나 뜸한 아쉬움들이 표현되었다.

두 번째 질문인 '일할 맛 나는 조직이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가요?'에는 몹시 다양하면서도 공통된 이야기가 나왔다. 다섯 명이 두 번씩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포스트잇 한 뭉치를 거의 다 소진하고 넓은 화이트보드에 전부를 붙였다. 우리는 구성원 개인들의 행복과 균형 있는 삶부터 서로 간의 소통과 역할 나눔, 조직 자체가 지닌 목표나 NPO들이 사회에서 지니는 위치나 의미들까지를 두루 살폈다. 수용과 인정, 공정함과 평등, 참여와 권한, 함께 도우며 성장하기, 변화와 콜라보, 협력, 사회적 기여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모였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호스트인 나는 〈조직의 재창조〉라는 책에서 소개된

12개 조직 사례들을 잠깐 공유하였다

인용구로 시작한 정리 문건에서 다양한 조직 운영과 의사소통 방식, 보상과 협력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다. 상상으로만 그렸던 것들이 어느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온 관행이었고, 당연히 어렵겠지하고 체념했던 방식들이 또 어느 곳에서는 성과를 보이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조직은 없었고 우리 사회의 구조나 문화적 상황에선 몹시 급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보다 용기를 한 발짝쯤 더 낸 것이지 그런 방식을 고민하게 된 배경이나 좌충우돌하는 과정들은 우리와 몹시 닮아 있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례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 중 적용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이었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동료들의 조언을 참조할 뿐 결정 권한을 온전히 존중하는 어드바이스 프로세스부터 마음 돌봄으로부터 시작하는 회의 구조, 감사와 긍정 피드백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과 꼭 필요한 것들만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찰해 나가는 문화 등을 적용할 만한 사례로 언급해주셨다.

그러다 한 분의 진중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잠깐의 침묵을 가져다주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하는 거죠. 다들 마음은 다 있는데... 우리가 왜 바쁜지 생각해보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내려놓기 작업을 해야 해요." 우리는 중요하고 필요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중요하고 필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함께 겸허해진 그 짧은 순간의 공기가 여운으로 길게 남는다.

마지막 대화이자 소감 나눔을 이끈 질문은 '당장 내일부터 일터/일상에 돌아가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이었다. 용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사랑, 감사, 나보다 상대의 권리를 먼저 챙겨주면서 공동의 권익 높이기, 대화와 깊은 경청, 존중, 멈춤과 성찰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모임 주제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다음 주제는 '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뛰어넘기', 또는 '우리 안의 차이들, 이럴 땐 어떻게? 대처 방안 세우기'이다. 언제가 될지 모를 다음을 기약하면서 박수로 이야기모임을 마쳤다.

끝나고 정리도 함께 해주시고, 밝게 활력을 얻은 듯한 표정들을 지어주셔서 감사했고 이를 준비하여 진행한 나 자신에게도 뿌듯함이 밀려왔다.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활동가들을 위해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 나는 또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의지가 기울어지는지에 관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 내가 큰 선물을 받은 시간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활동가들로부터 '참~ 일할 맛 난다~!'하는 감탄들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시작의 문을 연 것 같아 설렌다. 이러한 이야기모임을 전국적으로 열어주신 많은 손길들에 감사를 전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고, 정말 일할 맛 나는 조직이란 어느 조직이든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일하는 데 있어 좋은 조직의 트렌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모델도 있는데 사회는 왜 그것이 어려울까?
- 상대방의 권리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상대방이 일할 맛 나는 조직에 대해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각자의 마음가짐과 노력, 고민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조직에 돌아가 일할 맛이 나는 곳으로 변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일할 맛 나는 조직에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꼭 해야만 할까? 지금 변경이 안 될까? 바빠서 못하는 것들,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졌다.
-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서적, 문화적으로 연결되는 존재이다.
- 일할 맛 나는 조직이란 추구하는 가치를 실생활에서 실현하는 것, 생활 속에서도 가치 실현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나는 왜 이 조직을 선택했는가?
- 우리 그렇게 바쁘게 일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조직문화의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02 일, 놀이, 사랑 - 활동가들에게 삶의 재미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모임주최자	낑깡(농부시장 마르쉐)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9		

임상심리 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삶의 위대한 세 영역'인 사랑, 일, 놀이. 책에서 관련 글을 읽고 저의 삶에서는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며, 놀고 싶지만 어떻게 놀아야할지 모르겠고, 책상에만 앉아 노트북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올해 주 3일로 전환했습니다. 일과 조직을 사랑하지만 점점 상상하지 않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꼼지락 거리며 좀 더 놀고 싶었습니다.

주 3일로 전환하며 이런 저런 재미를 삶에 추가하려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풀어내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동료를 찾고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미를 추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활동가 이야기 주간을 통해 동료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적당한 업무량과 임금을 잘 협의하고 조절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조직에서 업무 분배와 분업화가 잘 되면 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
- 해야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조건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놀이와 사랑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시작인 것 같다. 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개인 활동 시간을 확보하자.
-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춰야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많이 됐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이'하지 못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공부가 놀이가 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 놀이가 되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 세상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 지속가능하고 유쾌한 삶을 위해서는 충분히 놀고, 열렬히 사랑하고, 알맞게 일해야 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제3섹터, 비영리, NGO세계에 대한 재발견,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와 그 세계에 대한 재발견, 일의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했을 때는 업무시간 외 시간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서 퇴근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했다.
- 해야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구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야겠다. 주변에 생활체육모임이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 말이다.
- 일과 삶의 밸런스, 어렵다.
- 특정 이야기 보다는 낯선 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나눈 것 자체가 좋았고, 이렇게 서

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 우리 사회에 많으면 좋겠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좀 더 향상된 선진화된 사회시스템과 경제 체제를 위해 1, 2, 3섹터에서 해야 할 바람직한 활동방안은?
- 지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 내가 삶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삶이란 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 이 질문을 나누고 싶다.
-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활동가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03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젠더/섹슈얼리티의 활동을 위해 청년활동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강동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1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젠더/섹슈얼리티 활동을 위해 청년정책 활동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청년정책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잡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활동 생태계, 관할 공무원, 청년정책 참여 플랫폼 등의 키워드를 갖고 짧게 이야기하는 소소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소위 청년활동으로 집단화되어 표상되는 활동들이 시민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의지 있는 개인의 출연에 기대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은?
- 젠더, 섹슈얼리티,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무엇일까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시민참여 플랫폼의 특성상 교육의 부재 등으로 젠더, 섹슈얼리티 담론이 확산되기 어렵다.
-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활동과 참여가 잘 설명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런 모임에 참여한 의미와 지속가능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성평등 의제가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 정책 생산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는 행정 영역에서는 성평등 의제가 예산 규모가 적고 각기 분절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
- 광역단위와 기초 자치구 단위는 차이가 있다. 광역단위 청년활동을 자치구 단위의 청년활동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자치구 청년활동에 있어 활동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젠더 다양성 교육이 시급하다.
- 청년활동 안에서의 젠더 의제의 확장을 위해 좀 더 포괄적인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1년에 몇 번 안 되는 참여 과정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의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다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같은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조금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따로 또 같이'를 느낄 수 있었다.
- 청년활동과 젠더활동은 좋은 의지뿐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청년활동은 연대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자기 증명을 계속 요구하고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 젠더 이슈가 하나의 분과 이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젠더 이슈를 더 확산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 젠더 이슈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참여로 의제를 확산시키거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의지 있는 개인들이 거버넌스와 정책생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지역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왜 광역과 기초자치구 사이에 차이가 있

을까요?

- 지역에서 젠더 또는 청년활동가는 본인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또 다른 세대와 어떻게 섞일 수 있나?
- 활동은 지난하고 어려운 일 투성이라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떻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
- 여러분들은 다양한 활동 영역 안에서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의제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나?
- 우리 청년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04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여옥(인권재단 사람)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8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듯 활동가의 활동조건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활동가의 건강은 활동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활동가가 자신의 노동(활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인색하기도 합니다. 활동과정에서 건강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활동가들이 각자의 경험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문제지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이야기모임을 열고자 합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조직과 사회구조적 원인을 발견하고 더 많은 활동가들이 건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최소한의 활동(노동) 조건으로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비가 활동가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환경에서 개인의 희생을 통해 유지하는 활동은 활동가를 소진시키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

-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활동 분야나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방법을 찾고 맨땅에 헤딩하느라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다보니 하루 24시간 정해져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거나 휴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 활동가의 건강문제를 조직에서는 개인의 질병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일과 활동에 쫒기다보니 서로를 돌보지 못 하고 스스로도 돌보지 못 하며 아파도 미안해서 쉰다고 말하지 못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조직이 성과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가로서 10년을 지내며 건강을 잃고서 힘들었던 순간 찾아오게 된 모임. 건강권이 마음에 꽂혀서 가게 되었지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모두다 아프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싶네요.
- 나의 노력, 주변의 지원,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 대부분 본인이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아픈 활동가들은 본인 스스로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활동을 떠났고 회복된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면서 내가 속한 조직과 운동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면 계속 활동가들은 아프고 죽어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람을 챙길 줄 알고 본인 스스로도 챙길 줄 아는 활동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 활동가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참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일하는 문화가 안 바뀌었구나 싶었다. 아픈 활동가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기 위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 80년대 NGO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겨난 이래 지금껏 열악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있음에 새삼 놀랐다.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양성은 어려울 듯 하다.
-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건강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렵거나 자원이 없어서 취약한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가 자신이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 활동가 건강권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주 조금씩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들이 겪은 이야기, 너무 슬프고 아프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자기만의 힐링 방법이 필요하고 동료 안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활동가의 보람으로 버텼다는 것, 활동가들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부귀영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료 활동가의 말 한마디를 원한다는 것,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단하다 싶었다.
- 활동가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활동비와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 누군가를 탓할 수만은 없고 그런 것을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느낀 것, 나도 이런 문화와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관여했다는 반성을 했다.
- 활동의 보람이 있을 때는 건강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상황의 연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자기개발하고, 8시간 잘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 활동하지 않을 때 스스로 치유하거나 사라지는 이들의 이야기가 활동판에 유의미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대외적 활동만큼이나 동료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챙겨야겠다.
- 4대 보험을 요구했던 이야기 등 4대 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웃음이 터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4대 보험도 할 수 없다면 조직을 운영하면 안 된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잃지 말고 함께 해나가요. 그리고 자신만의 에너지 충전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잘 쉬고 있나요?
-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정리하고 객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자리가 또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쓰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려울까요?
- 내년에 활동가를 위한 휴식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테니 참석해주시겠어요?
-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도 투잡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활동가 산별노조, 가능할까요?

05 앞으로 뭐해먹고 살지? - 활동가의 이직 고민

모임주최자	열쭝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2		

현재 단체를 퇴사했거나 퇴사하려고 하면서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각자의 고민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싶어요. 되도록 저는 거의 거들기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심 좋겠어요. 예상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 내 이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비영리에 갈 만한 직장은 있나?, 갈만한 직장의 기준은 무엇일까?, 직장에 안 들어가고 살 순 없을까?, 계속 활동을 해야 할까?,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조직 내에서 길을 찾다 소진되고 무기력해진 활동가들이 너무 많다. 활동가들이 덜 지칠 방법은 무엇일까? 활동가들이 퇴사하는 건 돈 때문 만이 아니다.
- 이직을 꿈꾸는 활동가들이 만나고 연결할 수 있는 모임, 공간,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조직 문화와 조직과 활동가의 상호 성장 여부가 활동가의 퇴사와 이직 관련 이슈의 핵심이지 않을까?
- 비영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다들 비슷해서 공감하느라 시간이 다 갔다. 우리에게 안전한 조직은 과연 있는가?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면서 안전한 조직이 있는지 해답을 찾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답은 살아가면서 더욱 천천히 찾게 되지 않을까?
- 퇴사는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왜 싫은지, 왜 퇴사를 생각하는지 등 끊임없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 현실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와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활동가이야기주간 주제 중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 주제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후속모임 만들어 주세요.
- 모든 활동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연대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활동가들이 하는 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면서 생계이고 그 자체로 삶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진로와 이직 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제2섹터는 돈을, 제3섹터는 가치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세계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지만 상호 배려와 경청의 마인드로 교류한다면 자기 세계의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활동가들은 참 외롭구나, 활동에 대한 각자의 비전을 세우는 게 힘든 것 같다.
- 어려운 고민이면서도 한편으로 누구나 하는, 누구나 겪는, 그래서 도움을 받거나 고민을 나누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 한 켠이 든든했습니다.
- 어느 단체든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권단체만의 공통된 단점이 있어서 이직을 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돌봄, 다양한 조직과 사람을 경험할 것, 불안을 감소시키는 건 커뮤니티다.
-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에 격렬하게 공감했다.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더욱 많이 생겨서 '안전한' 조직에 대한 공유, 자기효능감 등 자신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 생기면 좋겠다.
- 활동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개인의 삶)에 대해 나 자신의 생각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같은 분야 내 또는 타 분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조직들의 특수

성을 직간접적으로 두루 경험해보는 것이 큰 자산이 된다.

- 조직의 개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인의 교육 일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총회 일정을 연기하였다는 일화는 조직에서 부품화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큰 미덕이며 나아갈 바이다.
- 무기력을 경험하는 활동가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헌신과 희생이 익숙해져버린 40-50대 선배 활동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긴다. 조직의 민주주의가 과연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일할 맛이 날까? 조직 험담조차 미안해하는 활동가들, 뒷담화해도 괜찮아!
- 다른 활동가가 이야기해 준 건강한 조직문화의 두 가지 조건, 창립자가 현 조직 내부에 없어야 한다와 열정과 헌신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공감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조직문화나 활동의 지속가능성일 필요는 없겠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니까.
- 안전한 조직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한 조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퇴사가 어려운건가? 생계가 걱정되는가?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 전국의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또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당신은 당신처럼 일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가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 제1,2,3섹터의 상호발전적인 공존을 위한 공감대(교집합)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21세기 인터넷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방식은? 일, 삶, 사랑의 최적의 조화는 무엇일까?
-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 각자가 지향하는 활동가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06 활동가에게 이직(移職), 활동하는 단체를 옮기는 것이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박진옥(나눔과나눔)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6		

활동가라면 한 번 쯤 생각해봤을 이직(移職)의 고민과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활동하는 단체가 나의 비전과 맞는 단체일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다녀?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옮길까? 이것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 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활동가와 함께 그 당시의 고민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영리기업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기관,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NGO를 거쳐, 지금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의 괘적을 따라가면서 활동하는 단체를 옮기는 이직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이직은? - 꿈을 향한 도전, 미션을 찾아가는 과정, 용기가 필요해, 설렘 반,두려움 반, 감정을 스스로 충분히 드러내면서 내가 즐거울 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 운명

같은 것,

- 이직의 이유는? -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소진되서, 불합리한 상황,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조직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낄 때
- 이직하면서 느낀 점 -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됨, 항상 어디 다니는 누구라고 말했는데 감정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 쉼이 필요하고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한다. 그것에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의 마디 또는 국면이다.
-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직은 변화를 위한 발돋움이다. 새로움을 찾기 위한 꿈틀거림이므로 기죽을 필요 없다.
- 이직이란 쉼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길이다. 인생은 짧은 단편영화가 아니라 긴 시리즈 영화라고 생각한다. 한편의 시즌이 끝나고 다른 한편의 시즌이 펼쳐질 나의 삶과 그 길에 나의 일과 나의 삶이 있다.
- 직업의 중요성, 한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게 한다.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 어딘가 있을 편안한 둥지 같은 자리를 찾기를 바래본다.
- 직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어요.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비영리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보게 된다.
- 이직의 경험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었던 게 좋았다. 모두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
-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도 마음이 필요하다.
-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와 만날 수 있을까?
- 이직은 용기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의 지속가능성 혹은 이직 후 이전 활동가와의 생산적 연결을 가능하게 는 방법

은 무엇일까?

- 당신은 활동하면서 행복하십니까?
- 너도 행복하니?

07 조직에 속하지 않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

모임주최자	김영림(마을발전소)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9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87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소가 되어 자신의 터전과 자리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 찾기를 하는 이야기모임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의 운동이다.
-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상이 필요하다.
- 너트워크는 노, 네트워크로 예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재미있게 활동해보고 싶다.

- 스스로 발전해보고 싶다.
-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 활동가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됐다.
- 활동이 운동이 되려면?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나도 할 수 있다.
- 마을발전소 이야기
- 조직, 네트워크, 활동가
- 스스로 발전하기
- 운동성을 갖자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와 운동가 사이의 줄타기
- 활동과 직업
- 개미들끼리 연대하자.
- 조직은 꼭 필요할까?
- 나이 많아도 같이 잘 할 수 있을까요?

08 느슨한 네트워크의 지혜로운 운영 방안

모임주최자	변혜리(사회혁신활동가 운영지원)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8		

느슨한 네트워크의 지혜로운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란 무엇일까?
- 참여하는 것과 동원되는 것의 차이는?
- 민주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조직문화란 무엇일까?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나의 조직은 안전한가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었다.
- 활동가의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NGO에서 NGI로 느슨한 네트워크가 모여 결속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오래 봅시다.

- 활동가들 간의 수다가 필요하다.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활동하는 영역이 아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임이 느슨한 네트워크 아닐까?
- 활동가들에게 세대별, 계층별 작은 모임이나 소통창구가 필요한 것 같다.
-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NGI(Non-Governmental Individual)란?
- 네트워크는 유익(효용)해야 된다. 정체성과 가치가 충돌할 때 민주적인 조직문화, 관용, 재미가 중요하다.
- 조직과 활동에 대한 관계는? 조직은 유익한가?
- 사회적 활동이 반드시 조직되지 않아도 된다? NGI의 존재와 시각을 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활동가분에게 감사하다.
- 시민이 진정한 지배자가 되는 시대, 시민활동가가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무원이 시민활동가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 조직 내부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혁신파크 공사가 빨리 끝나서 지금도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의 가능성을 더 보았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혁신파크에 정말 많이 오는데 설명이나 공간 운영, 구성이 아쉽다.
- 10년 전과 10년 후의 활동가에게 또는 자신에게 오늘의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
- 활동가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활동가인가?
-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할 일은?

09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

모임주최자	쮸빔(페미위키 운영자)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5		

페미위키 운영진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온라인 채팅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니 진행 속도가 자주 느려지고, 피로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편 페미위키 사이트 자체는 365일 24시간 내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나 악성 댓글을 목적으로 한 계정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각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스팸과 악성댓글 차단 등을 일부 자동화 하였지만 거의 항상 사이트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가들, 특히 페미위키 운영진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좋았던 점** - 6*6 질문 게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자의 성격이 활동가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없애고 싶은 세 가지를 꼽을 때 모기, 에이즈 등을 꼽은 팀원이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게 되는 질병의 원인을 떠올리다 보니 이러

한 대답을 했다고 하여 사람들을 위하는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팀원은 정신적 고통을 없애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으며, 페미위키 운영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업무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가 보면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외에도 서로의 다른 면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아쉬운 점** : 페미니스트 활동가 중에 여성에 대한 억압을 사유하고 관련 활동을 하다가, 동물에 대한 억압도 그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여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다. 제공된 간식이 비건 옵션인지 여부가 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만약 가능했다면 비건 옵션인 간식은 논-비건인 사람들이 먹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으니 비건 옵션인 간식이 제공되었다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간식 중 몇 가지는 개별포장지에는 어떤 성분인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다. 갑각류 관련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팀원이 있었는데, 이처럼 특정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알러지 성분 관련된 표기가 함께 동봉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로 만약 추후에 6*6 질문 게임을 초면인 사람들과 했다면 불편할 만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는 초면인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다소 어색한 주제인 것 같았다. 6*6 질문 게임 자체는 서로에 대해 알기 좋았지만 추후에도 사용한다면 질문을 변형해서 써야할 것 같다.

- **느낀 점** : 먼저 업무 외적으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페미위키처럼 온라인 기반의 활동 위주인 곳은 아무래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맥락을 알기도 어렵고, 오해가 쌓이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한다. 운영팀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오해가 쌓이고 특히 갈등이 많았던 팀원이 있는데, 이번 이야기모임 시간을 포함하여 전보다 많은 시간을 업무 외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보냈다. 덕분에 서로의 좋은 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서로의 말투에 대해서도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니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최대한 자주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업무 외에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활동가들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페미위키 같은 경우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해서 한동안은 업무 체계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운영팀 전체를 정비하고, 팀 체제를 개편한지 이제 2달 정도 지났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를 과하게 하고 있는 팀원이 있음을 이야기모임에 모인 모두가 느

끼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페미위키 사이트를 거의 계속 주시하고 있는 팀원이 있어서, 해당 팀원(거주지가 멀어서 아쉽게도 이야기모임에 참가하지는 못 했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나눠서 할 수 있을지 잠깐이나마 이야기할 수 있었다. 24시간 열려있는 사이트에 대한 부담감과 주시해야 하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하여, 주시하는 시간대를 분담하자는 내용은 추후 운영팀 회의에서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페미위키 운영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유는 업무가 과중한 것과 웹사이트 운영이라는 특성상 24시간 내내 일을 쉴 수 없다는 것, 두 가지로 정리했다. 업무량이 과중한 부분은 신규운영진을 충원하는 걸로 해결하려 하고, 사람들과 신규운영진 채용 전략을 논의했다.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운영진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채용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사람 한 명에 일이 과중하게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일상 업무는 당번제로 나누기로 했다.
- 페미위키 운영진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1) 업무시간 정하기 2) 휴일제도 정하기를 생각해봤다. 왜냐하면 365일 24시간 내내 활동가는 쉬지 못 하고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큰 피로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피로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활동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커뮤니티가 나아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기여하는 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페미위키의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업무분업과 활동가 모집이 더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도 조직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상시운영되는 위키의 특성상, 운영 팀원들이 24시간 위키에 상주하며 동력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키 관리에 있어 당번제로 업무를 분담해야 하고 구성원 입장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페미위키가 오래 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더 자주 필요함을 느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6*6 주사위게임을 할 때 서로 같은 활동을 조금씩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다.
- 신규 운영팀원이 왜 적응하지 못 하고 단체를 나가게 되는걸까에 대한 고민을 나눴

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고 (업무적응이 어렵다) 대책을 세웠다. 업무 이해도가 낮은 업무를 부여해서 우선 적응한 다음, 점점 업무 이해도가 있는 업무를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적용해보고 실패하면 또 원인을 분석해봐야겠다.

- 모임 활동에서 역할과 시간을 분담하는 것이 활동을 유도하고 적용하는 데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 다들 활동을 하는 이유가 비슷하고 연결되었던 지점. 활동이라는 것에 관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조율할 필요성을 느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모임활동을 하실 때 생업과 모임활동을 구분하거나 나누어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활동가 건강권에 대해 더 많은 단체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 활동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그리고 생업과 사회활동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도 궁금하다.

10 운동사회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과 연대 과정에서 발생한 활동가들의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모임주최자	조한진희(다른몸들(준))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9		

우리 사회 모든 곳에는 성폭력이 존재하고, 운동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나마 운동사회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위를 형성해서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합니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조직적 지원을 하는 문화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활동을 하는 대책위원들도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토론하면서 여러 상처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운동사회 성폭력 대책위 활동을 하고 나서, 조직을 떠나거나 운동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한번 대책위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절대로 성폭력대책위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도 종종 만납니다.

성폭력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사건이라면,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발생한 고통과 상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운동사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은 제도화 되고 있으나,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연대하다가 상처입고 고통 받는 활동가들의 경험은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동사회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정서적 안전망이 보장 될 때, 운동사회성폭력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고, 마침내 성평등한 사

회가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사회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이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고 공감해야 한다면 성폭력 대책위 활동 과정에서 대책위원이나 연대자 등이 겪는 고통도 공동체가 공감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책위원들 또한 여러 공격을 겪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흡수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성폭력 대책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능할까?
- 피해자의 지지자(대책위원, 연대지)에 대한 2차 가해(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별 온도차로 인해 각개전투를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폭력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사안을 함께 해결해 보는 과정이 희망적이지 않더라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좋았습니다.
- 공동체 내의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서로 지지와 공감을 나눈 부분들은 힘이 되었고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여러 사례들을 접하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양상들이 유사하기에 분명히 이 상황을 관통하는 근본문제(구조)가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리더뿐만 아니라 규정화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어렵다, 다들 어렵다, 원래 어려운 것인가 보다. 어려운 일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니 안심이 되기도 했다.
- 운동사회 성폭력은 특수성이 있고, 보통 은폐되거나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백래쉬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해결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 사건 지원과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피해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마땅한 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야 해결되는 상처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란 전제 위에서 '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도, 다른 동지들을 위해서도.

- 활동을 돌아보게 됐으며 관련 활동가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의미 있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이 사안에 대한 활동가들의 태도와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단체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험을 더욱 알고 싶어졌다.
- 여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오랜 시간을 신뢰와 함께 기다릴 수 있다면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 문제 해결과 조직문화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지 토론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 지지자에 대한 2차 가해(2차피해). 피해 지지자와 지지모임에 대한 케어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 성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앎들을 채워나가는, 규정 사이의 빈칸을 채우자는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지자 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문화를 성찰하고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사람들, 대책위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법에 대한 불신, 공동체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사회 안에서의 중재의 필요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더 들어보고 싶었다. 역고소 사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곁에 활동가가 사라지거나 죽지 않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과 사익은 성폭력 이슈에서 어떻게 구별될까요?
-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지지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지지 집단과 케어를 만들고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 왜 운동권은 운동권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하기를 주저하는가?
- 피해자 지지자에 대한 2차 가해(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제2의 100인위가 필요하고 가능한가?
-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11 과로, 스트레스, 끝없는 긴장으로 밤을 잊은 그대에게, 건강을 돌보면서 활동할 수는 없을까?

모임주최자	단비(심리치유공간 와락)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3		

활동가들의 일상화된 과노동과 스트레스는 소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건강의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서전염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일상과 활동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긴장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아 원치 않는 수면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고통의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절규에 찬 이야기를 보고 듣는 사회 활동가들의 정서감염과 대리외상은 심각할 수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조차 알 수 없어서 정서적 탈진이나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을 지속하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활동가들의 건강과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를 '건강의 척도인 잠'에 대한 이야기로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당신의 잠은 편안하신가요? 우리를 잠 못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잠을 통해 활동가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고민과 지혜가 함께 하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들은 활동과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활동을 하면서의 긴장이 해소되지 못한 채 수면 장애나 불안, 소화 장애 등 몸과 마음건강 영역에서 손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과 일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활동현장에서도 '퇴근했다'는 감각을 유지해서 건강을 돌보고 지키면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늘 말해야 한다는 생각,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긴장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활동에서의 한계나 어려움을 나의 능력이나 개인적인 한계로 연관해서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쉬거나 잘 때는 To-Do=List를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편하게 쉬거나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늘 밖의 일이나 이슈에 대응하느라 정작 활동을 하는 나 자신을 살피거나 돌보는 데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안부를 묻는 조금의 여유를 만들면 좋겠어요. 활동가들이 이완하는 방법을 삶의 필수기술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자기 전에 하루 중에 못 본 뉴스를 챙겨듣는 행위가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 호흡을 길게 하고 여유를 가져야겠다, 나를 돌아봐야겠다.
-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과 삶이 분리되기 어려운 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일상적 수면'과 일상과 일의 분리 지점인 '퇴근하는 감각'이 절실하다.
- 늘 잠을 못자는 것에 스트레스 받기만 했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본 건 거의 처음이라 유의미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에 끌려서 왔는데 여기서 내 밤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간다.
-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시간이 나에게 이완을 가져다준다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참여자의 소감 중 하나인 '퇴근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와 '일상과 일을 분리하자'는 내용이 너무 좋았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어 좋았다.
- 퇴근 후 일에서 벗어나 몸을 이완시키고 일과 의무를 잠시 마음의 서랍 안에 담아둘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자.

- 호흡명상을 하는 동안 HIV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어젯밤 잘 잤나요?
- 나를 돌보고 있나요?
- 하루를 시작할 때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신가요?
- 당신이 활동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12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모임주최자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4		

많은 시민단체와 노조에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덜 반영됩니다. 대표성이나 조직운영, 조직문화에서 느꼈던 갈증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활동을 하고자 했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도 성장하고 조직도 변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당장 해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조금 틈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성이 많거나 남성대표성이 강한 노조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나를 쿡쿡 찌르는 것들

- 성차별, 나이차별 같은 차별을 경험해도 차별을 받아봤던 사람이 차별로 인식한다.
- 가족주의적 문화, 패거리문화(흡연/비흡연)에서 살아나기 어렵다. 혼자서는 생종하기 힘들어 패거리에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생존이 어렵기도 하다.

- 전문성을 갖춘 남성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젊은 여성활동가의 이야기는 패싱되는 현실이 있다. 젊은 여성을 부담스러워 한다. 어린 여자로 포지셔닝되고 어린 여성이라 패싱되는 일이 많다.
- 노조는 위계 없이 관리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생산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상대편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관계 맺는 방식이 일방적이었던 사람과는 일하기 꺼려진다.

나만의 비법: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 술을 안 먹는다. 친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처음에는 있어서 술자리에 함께 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겪는 불편한 일들 때문에 현재는 활동을 위해서 술을 먹지는 않는다.
- 내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버틴다. 지지해주는 사람 만들기가 필요하다.
- 외모가 약해보이는 것으로 인식될 때, 끝까지 일부러 힘을 과시한다.
- 여성활동가들은 무리지어 있지 않으면 취약하다.
- 이어폰 끼고 불편한 사람의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할 때도 있다.
-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힘들 때도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쉽지 않다.
- 나이라는 벽이 있다. 나이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가 많거나 적으면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 어렵다. 한국은 나이가 중요한 사회다.

여성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직문화란?

- 수평이라는 이름으로 공백이 생기고, 선배도 허덕대고 있는 현실이다. 허리 단계가 없다.
- 젊은 사람은 경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단절과 경력에서 이길 수 없는 현실로 꽉 차있다. 후배들이 나와서 싸웠으면 좋겠다. 경험을 뒤로 넘기면서 따라올 사람을 키우고, 앞으로 나가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래야 한다. 게다가 윗세대의 경험이 의미 없는 경험이 많고 현재 써먹기 어려운 경험이다.
- 문제제기해서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편한 것이다. 그 편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나이가 많든 어리든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왜 여성활동가들의 고민을 조직에서 나누기 어려운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현재는 각자의 노하우로 각개전투하는 것에 머무르는 여성활동가들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차별뿐만 아니라 관료문화, 조직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신기하고 의미 있었다. 앞으로는 각자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구조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 다양한 측면이 고민들을 다시 일깨웠는데 생각보다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서 놀랐다. 조직 내 다양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바람직하고 건강한 해결의 경험은 딱히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경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 성장하기 참 힘들다.
- 남성 중심의 위계적 노동조합과 활동공간에서 여성활동가로 생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갈등해결을 위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쌓일 때 개인의 역할을 뛰어넘는 지지대를 고민하게 됐다.
- 헌신은 요구될 수 없다.
- 같은 여자라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 조직 내에서의 갈등해결 방식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조직의 투쟁을 함께 하면서 내부 투쟁도 해야 하는 여성활동가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투쟁과 함께 가는 일상과 투쟁에 대한 고민과 변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젊은 활동가들이 바라는 것이 호칭 불러주기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
- 남성활동가의 입은 생각보다 가볍다.
- 문제제기가 정신나간 소리로까지 변하는 건 너무 쉽다.
- 노동조합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를 어린 여성활동가 혹은 나이많은 여성활동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곤란한 일인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에 대한 시도를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하지만 그것이 좌절됨으로써 끝내는 조직을 나갈 수 밖에 없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생겼습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여성활동가가 소모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활동 매뉴얼은?
- 당신의 조직에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 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하는 동지와 조직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일까요?
- 내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우리로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자리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13 활동가,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내 마음 지키기

모임주최자	분노의포도(환경활동가)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3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88		

온라인 상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논쟁하기도 하는 활동가들. 때때로 조리돌림 당하기도,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며 사이버 불링을 당합니다. 이런 경험은 '활동하며 계속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위축시킵니다. 사이버 불링을 겪은 경험을 나누고, 다치지 않는 온라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당신(또는 당신의 조직에서)은 사이버불링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적 대응, 주변 지인들과 함께 대응, 정신과 상담 등 개인의 마음 챙김까지요.
- 우리는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고 개입하고 그 속에 살고 있나요? 그런

성찰이 단순히 느낌이나 우리만의 어설픈 분석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악플을 다는 사람이 우리 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 대중은 누구일까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단체에 대한 비판과 개인을 향한 공격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음', '치유' 등의 해결방안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자칫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사이버불링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 사회 혹은 조직은 사이버불링이라는 개념과 실태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매뉴얼을 설계해야 한다.
- 사이버불링은 예방이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마음이 반응하는 기재가 다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후대응을 어떻게 하고 조직 또는 개인이 이를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사이버불링 경험 이후 들었던 속상한 말과 태도들이 있다. 활동가라면 이래야지, 잊어버려야지, 훌훌 털고 다시 마음 잡아야지, 너 개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지 등 활동가에게 강요되는 모습이 분명 있다. 단단함이나 강철같은 멘탈을 요구받고, 사교적이고 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예민하고 민감하게 작은 것에 분노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믿는 것이 활동가인데 뭔가 인지부조화를 겪는 것 같다.
- 우리가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의 여론이 실재하는 유효한 의미의 여론인지, 단순히 익명성과 함께 형성된 가상의 여론인지 면밀히 구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활동가가 당하는 부정은 개인의 마음건강뿐 아니라 활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꼰대를 비판하며 꼰대의 언어를 쓰는 당신은 왜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 사이버불링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나아가 이 폭력에 조직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 우리가 보고 대하는 시민과 대중은 누구인가요?

14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 돌아보기

모임주최자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3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참가자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활동 원동력을 찾고 서로 공유합니다. 활동의 연결지점 및 연결의 필요성을 찾습니다. 보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에 초점을 맞춰 활동가로서 어떤 능력과 자원이 있는지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연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결국 연대는 사람과의 만남이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

- 서로에 대해 이야기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은 잇다. 연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하다. 서로의 활동과 인권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
- 함께 활동하지만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연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고 함께하는 동료가 같이 있다면 활동에 힘이 된다.
- 활동에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고보면 업무편중과 위계의 인지와 역량과 가치의 차이 등의 문제들에 부딪힌다. 그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 연대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가 연대하며 혹은 활동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짐작하게 되었다.
-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기 위해 시작된 활동인데 어느새 각자의 영역으로만 칸막이가 쳐진 부분도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 우리의 활동이 더 잘 연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 같다. 연대는 사람과의 만남이고 개개의 활동가들이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서로 바빠 연대에 대해 이야기나눌 기회가 너무 적다는 점, 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어떻게 찾을까?
-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 필요한 것 등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서로에 대한 연대의 가능성, 서로에 대한 응원, 함께 한다는 생각 가지기가 좋았다.
- 돈이 빠질 수 없는 이슈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국내 기업들의 NGO에 대한 후원을 늘릴 수 있을까?
- 활동을 사명감만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과 일방적으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것 사이의 차이

와 긴장들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 모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연대하는 단위들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활동을 어떻게 할지 회의는 많았지만 방향을 깊이 논의해볼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와 회의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좋았다.
- 운동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다. 운동이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상징과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명에게 집중될 때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되는 지점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연대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
-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활동가로서 어떤 능력과 자원이 있는지 공유하고 목표와 과정을 함께 만들기. 이러한 자리를 수시로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 전국 조직의 경우, 서울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을까요?
-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일까? 희생하지 않고 활동가도 행복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 지속가능하면 튼튼한 연대를 위한 조건은?

15 비영리활동으로 인한 소진, 그리고 회복, 그 이후.

모임주최자	시도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8		

활동을 하다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수다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이와 술 한잔으로 해소되지 않는 힘듬이 덮쳐올 때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힘듬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 '활동'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란 것을 직감할 뿐입니다.

힘내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나의 힘듬을 말하는 것이 어리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들 힘든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고, 다들 멀쩡하게 잘 활동하는데 나만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은 헛헛하기만 합니다.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도 자기 할 말 하기 바쁩니다. 곁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자고 말하지만 비영리 영역도 각자도생의 사회란 생각에 쓴 웃음이 지어지고 이 영역에 들어선 것을 후회합니다.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지만 저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 활동가, 2030세대가 겪는 소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 역시 활동을 하다 소진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호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환대의 자세로 연대하며 협력해서 함께 일하자고 말하는 비영리 영역에 잔뜩 기대를 하고 온 밀레니얼들이 겪는 활동 형태와 무관하게 각자도생하며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 도구가 되는 느낌, 인권, 노동, 젠더 권력에 대한 감수성 없는 동료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분노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마음들,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잣대로 자신을 검열하는 내적 기준까지 혼자 끙끙댔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적 언어의 영역까지 수용하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각자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원인을 나누다보면 누군가를 탓하기 쉬운데 미국의 통계이긴 하나 1,500명의 젊은 직장인에게 물었더니 전 직장의 퇴사 이유가 mental health 때문이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밀레니얼은 절반, Z세대는 75%라고 합니다. 비영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2030세대는 일을 하는데 있어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이런 전제들을 함께 나누며 조직 내 활동가이든 아니든 활동가들이 활동을 멈추게 할만큼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동료들이 할 수 있는 것,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주며 균형있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텍스트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계속적인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유모를 눈물만 흘리는 날이 정말 많았는데 돈은 벌어야 하는 상황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활동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들에게 연대의 의미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원을 만드는 것도 활동의 일부지만 자원이 없는 곳에서 하다보면 자신밖에 갈아넣을 자원이 없더라구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사회와 공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이 많은 활동가들도 자기 활동에서 힘들고, 소진되고, 잠적하고, 고통이 신체로 드러나는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해요. 힘들어하던 동료들이 아무 말없이 이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간을 잘 회복하고 성숙해서 다시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상처받고 말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라지지 말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외부와 싸우는(투쟁하는) 조직은 건강하기 어렵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닮아가

는 것 같다. 요새는 시민단체가 언어나 방식이 용역 사업과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 행정화된다.

- 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내 양심을 지키고 싶어서다.
- 활동을 그만두는 과정에,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방사능처럼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를 죽이고 있더라.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나를 지키자.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 대의와 나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 몸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본능을 따를 것이 필요하다.
-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를 갈아 넣지 말고 장기전으로 생각하자.
-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도 조직문화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고민되는 것이 슬펐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역시 돈이 문제구나. 활동가의 소진이 계속 일어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활동가가 소진을 감당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며 조직의 현상을 개인의 소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만나는 사람들의 소진을 잘 알아차리고 돌보아야겠고 나 자신의 소진을 쉽게 허용하지 말아야겠다. 조직의 구멍을 나의 소진으로 메꾸려하지 말고 조직의 소진은 고발해야겠다. 나부터 소진되지 말아야겠다. 나의 소진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6x6 질문게임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좋았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소진되는 순간들, 소진하게 만드는 조직문화와 사회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기억에 남는다.
- 어떻게 이 사회와의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 죄책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검열이 나를 힘든 곳에 묶어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누가 죄책감도 하루 권장량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살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자살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딜 가나 행동과 실천의 여부를 중심으로 바라보아야겠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을 그만둘 때, 떠날 때, 쉴 때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느끼시나요?
-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활동가가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무엇이 가장 힘들고 무엇이 가장 힘이 나게 하는지요?
- 밀레니얼 활동가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권 지역

16. **안양**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17. **화성** |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18. **수원** | 활동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19. **수원** | 언론과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20. **인천** | 활동가분들! 우리도 좀 가볍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21. **용인**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22. **부천** | 지속가능한 활동가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3. **광명** | 중간지원조직에서 자기 비전과 활동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24. **부천**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16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박정진(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	경기 안양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89		

지역에서의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지역 활동가의 정례모임이 필요하다.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하는 활동은 이제 그만.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편안한 대화 속에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즐거웠다.

-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의 정례화 된 모임이 꼭 필요하다.
- 느슨한 연대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필요합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첫 시작이 좋았다. 이러한 활동가 모임이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이 끊겼다고 하니 또 다른 시작은 반가운 일이다.
- 오랜 시간을 들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하다.
-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알아가고 싶은 활동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다 좋았다.
-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활동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 지속성과 교류할 수 있는 곳,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다.
- 지역 내 사회단체 이야기들은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란? 나는 활동가인가? 우리는 활동가이다! 다음 모임에서 또 즐거운 시간 기대해도 될까요?
- 활동하시는 일은 재미있으신가요?
- 활동가 쉼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우리의 노동은 어떠한가요?
- 지금 우리에게(활동가) 중요한 건 무엇일까?

17 지역 활동가 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김명숙(도시농업관리사, 원예치료사)		
지역	경기 화성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04		

지역활동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신껏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며 변화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18 활동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박은미(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	경기 수원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7		

협동조합의 활동가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당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변화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심지어 변화의 방향이 옳은지 의문마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함께 활동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개개인이 모여 조직문화를 이룬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서로 배려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서로 보완하며 지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 점이 좋았다. 그리고 활동을 망치는 요소를 기억하고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서로 소통하며 공감이 가는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주제 같다고 느꼈다.
-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가의 자세와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걱정만 앞세우는 부정적인 말보다 작게라도 시도해 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
- 가치 중심적으로 사심 없이 헌신하는 수용적인 문화가 중요하다.
- 긍정적이고 열정으로 열심히 하면 조직이 더 발전하고 조직 간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활동하는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조직의 좋은 점을 더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이 좋았다.
- 의료사협의 조직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 아쉬운 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이야기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의견들을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봐야겠다.
- 우리 조직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면 실망을 감출 수 없었는데, 좋은 점들을 꼽다보니 내가 몸담은 곳이 자랑스럽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 우리가 현재 활동하는 곳이 발전할 수 있는 것, 단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제시되었음이 인상 깊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함께 활동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세요.
- 본인은 어떤 원동력으로 활동을 지속 하는지?
- 당신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십니까?
- 활동가로서 함께 나누고 활동하면 가치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모임을 통한 나의 역할이 희생이 아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19 언론과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나문주(경기복지시민연대)		
지역	경기 수원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532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의 업무로 그 중요성을 종종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언론과 미디어'입니다.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언론'에 대응할 줄 알아야하며, 때론 '언론'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을 바로 볼 수 있는 역량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활동가들이 모여서 '언론바로보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바른 언론, 부당함을 고발할 수 있는 언론의 힘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 나누어보고, 활동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언론의 핵심 방향설정 방법은 의제설정과 게이트키핑이다.
- 우리나라의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된 계기는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이다. 부산일보 1

면 보도되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언론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나 혹은 알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현실이다. 똑바로 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언론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아젠다 세팅과 게이트 균형을 통해 인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친일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한 관심과 강한 신념으로 생각하자.
- 뿌리부터 무너진 언론이 바로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무엇이 언론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언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우리 사회 근본적 모순은 친일청산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그만큼 친일적폐청산이 중요하다.
- AI시대가 온 우리의 미래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의 의견이 맞는다는 것을 느꼈다.
- 언론사 유지를 위해 기사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광고와 바꾸기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지역신문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 지역언론이 올바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정기적으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언론개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신이 알고 있는 언론은 무엇인가요?

20 활동가분들! 우리도 좀 가볍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모임주최자	살구(인천녹색연합)		
지역	인천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2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96		

활동가분들! 우리도 좀 가볍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를 주제로 이야기나눌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참여자는 한 분이셨구요. 저희는 둘 다 활동가라는 직업적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저는 주변에 제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저는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활동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연애 이야기까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활동'이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일하는 방식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 일상에 대한 전환을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실수하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가'스러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물론 저도 일하다 보면 잘 하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춰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럴 때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하는 것인데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손을 건네고 힘을 줄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 같아요. 그런 동료들을 만난 적 있고, 그런 동료들은 같은 조직에서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나를 활동가스런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니까요. 사람은 얼마 안 모였지만 계속 활동가스러운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지를 만난 것 같아 든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1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이수연(협동조합 슬슬)		
지역	경기 용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7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며 마을 안의 활동을 좀 더 확장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영리와 비영리사이,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이란 최소한의 비용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원동력이라 할 만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세대까지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삶이 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 같다.
- 민주적인 사회, 민주시민. 이런 단어들이 아주 오래된 명언과 같은 느낌도 들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누군가 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겠다'는 말, '관심이 전제가 된 자발적 참

여의 중요성'에 관한 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 활동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면에서 성장했나요? 뜻하지 않게 얻은 성장이 있다면?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보면서 그럴싸한 답(?)을 생각하는데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활동가로 시작한 지 아직 감도 오지 않은 겨우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마음 속으로만 느꼈던 문제인식을 드러내는 게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활동가를 선택한 사람이 과연 안전을 생각하고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치 있는 일, 특히 내 다음세대에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활동가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웃, 마을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가치가 지속가능하려면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지속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치의 공유와 함께 이해와 공감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의 관점은 활동가 혼자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조직에서의 활동가로서, 가족에서의 활동가로서 존재해야 한다.
- 지속가능하다는 건 현재의 상태를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스스로 역량 강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돈과 관련해 조율(다른 일로 수입을 창출하거나 소비를 줄이거나)이 필요한 것 같다.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지속성과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적 보수와 활동에 대한 신념과 가치, 보람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적극적인 자세,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 지속적인 교육이나 비슷한 단체와의 대화, 조직원

들의 신뢰 등. 그 중에서 조합원들과의 조율에 대해 생각해봤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조율이 아닌가 싶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 답변자는 후회되는 선택보다 잘한 선택이 더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다. 나는 이 질문에 후회된다고 생각되는 선택이 여러 개 떠올랐다.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 활동가가 몸담고 있는 단체 안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서 단체 밖에서 그 단체를 응원하는 힘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미안해하지 않기' 지금의 활동만으로 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NO'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면서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그럴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 전체적으로 좋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합의와 조율 의무 등에 대해 말할 수 있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결국 이야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조직에 대한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 제가 받은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다. 10년 후에 죽는다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리의 일을 가치로 환산하는 다양한 방법은?
-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대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활동가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지금하는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22 지속가능한 활동가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원건형(부천시민아이쿱생협)		
지역	경기 부천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6		

비영리 조직의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할 활동가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야기 워크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 존중, 열린 마음, 소통이 필요하다.
-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지지해주고 함께 하기가 필요하다.
-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확신,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을 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유대감으로부터 나온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민주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나와 이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이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성장 의지와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투자(물적, 시간, 정성)가 있어야 한다.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인간 관계와 명분이다.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일상적 소통이 가능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관계로부터 나온다.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필요한 문화는 경청이다. 존중의 중요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 생각과 입장, 성향에 따라 문제를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우리 구성원들끼리의 지지, 격려, 응원이 많이 필요하구나 싶다.
- 사람이 좋고 싫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화두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더 많은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더 많은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은?
-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23 중간지원조직에서 자기 비전과 활동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임주최자	최정우		
지역	경기 광명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2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8		

중간지원조직에서 행정과 주민과 함께 변화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비전과 활동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활동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고용한 센터, 센터를 고용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고용한 행정, 행정을 고용한 선출직 사이에서 일하면서 극심한 조직 갈등과 비전 상실과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제대로 된 중간지원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중간지원조직이 뭘까요? 시작과 역사, 현재의 모습을 책과 논문, 자료와 일 경험으로 살펴보고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조곤조곤 함께 읽고, 편하게 말을 나누며, 일상에서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장단점과 역할 등을 되짚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가 겪어온, 짧지만 알찼던 활동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선배세대'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중간기관의 모델 중 촉진하되 평가하지 않는다, 행정에게 행정의 역할을 줌으로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인천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그 중간지원조직, 지금도 안녕하신가요? 중간지원조직 실패와 성공사례 기록을 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24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박다정(부천시민연대회의)		
지역	경기 부천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2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부천지역 7개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지역의 사안마다 느슨하게 연대하면서도, 함께 고민하는 관계입니다. 단체별 상황과 여건이 저마다 다르고 주된 사업도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주요한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는 일들을 함께합니다. 각 단체마다 상황, 규모, 활동가 수, 주요 사업 등이 다 다르지만,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지역에서 대응해야하는 사안은 많으나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실무자들이 정착하는 비율은 낮고, 회원 활동력도 점차 약화되는 문제들, 단체별 각자 사업에 중요한 지역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문제 등 일에 쫓겨 못 나눴던 속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각 단체가 가지고있는 상황,어려움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2) 활동가 개인들이 가진 고민들과 세대간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3) 지역연대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과 연대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지만 꼭 생각해보고 나눠봐야 하는 문제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선배 그룹들은 후배 세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들을 본인들의 언어로 잘 표현하여 조직에서 공론화되기를 원했고, 후배 세대들은 그 기본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실무자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급여,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등 다양한 이유로) 가운데,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에 대해 양 세대 간 필요를 느끼고 고민하나 정작 그것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기는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공동의 사안을 대할 때 단체별 사정과 여건, 우선순위, 회원들의 관심사나 온도차이 등 그 층위에 따라 결합수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몇몇 일에 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고 폭파할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하는 일이 승패의 문제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 중요한 것은 개별 단체의 원동력을 소진하는 방식이 아닌, 결과와 상관없는 우리만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작든 크든 그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진솔하게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갖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불편한 것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것, 작더라도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경험을 갖는 것, 지역의 사안들을 풀어가는 공동의 연대틀을 확장하는 것,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기술, 내용들을 나누며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그것들이 각자 단체로 돌아가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자.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어렵지만 꼭 해야 할 문제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만 아니라 상황과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좋은 시간이 되었다.
- 활동과 협의체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며 구성원의 생각을 알게 되어 좋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공감과 공유, 이해와 배려를 통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려야 한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NGO 특성상 관심을 쏟는 사업이 많은데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면 지치고 나가 떨어진다.
- 지역연대모임에서 생각해 볼만한 주제로 좋은 시간이 되었다.
- 지역시민사회의 연대가 갖는 의미,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있고 필요한 시간이라 느껴진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신뢰와 필요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각 단체의 지향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나누며 각자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점이 있었다.
- 속 이야기들을 나눈 게 언제인지, 진짜 우리들(모임)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의가 아닌 이야기였다.
- 단체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회의나 모임 전에 마음 나눔 등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자리가 필요하다.
- 각 단체 활동가들의 활동 철학과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 등을 얘기하는 시간이 좋았다.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 '함께하자'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가의 지지, 격려, 공감, 신뢰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 활동가의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은?
- 그대들은 잘 삶을 나누고 계신가요?
- 활동가들이 꾸준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가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노하우는?

충청권 지역

25. **아산** | 조직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26. **청양** | 20대 농촌여성활동가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27. **옥천** |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28. **청주** | 20~30대 활동가들의 어려움과 고민거리
29. **대전**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30. **대전**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31. **대전**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32. **대전**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33. **청주** | 20대 여성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야기

25 조직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방법은?

모임주최자	김성수(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지역	충남 아산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6		

조직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당사자가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지 않은 분은 당연히 모임 당일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익명으로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질문을 올린 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참가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 그러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에 대한 생각과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오늘 이후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어디에 있든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응원할게요.

- 조직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히려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이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조직에 속하지 않는, 혹은 속해 있는 신규(청년) 활동가의 역량 강화, 활동 기반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지역 시민사회가 만든 그들만의 리그(시민을 만나지 못 하는)가 청년 세대 활동가들에게 큰 의미와 목적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단순히 1인 활동가로서 해야 할 점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그 신념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 몰랐던 1인 활동가들의 활동 방식과 활동 자금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 방식, 활동자금 해결 등)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로 사는 이유는?
- 스스로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과 계기가 무엇인가요?
- 당신의 성장을 위해 조직은, 그리고 스스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6 20대 농촌 여성활동가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모임주최자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역	충남 청양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0		

아래와 같은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1) 농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장단점, 본인의 경험 발표

2) 마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은?

3)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4) 나에게 청양이란 OO 이다

청양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29세 이하 여성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저녁식사와 다과 준비할 예정입니다. 버스 막차시간이 끊기는 경우 차량 운행 가능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대상을 의도적으로 한정했다. 처음엔 '20대 여성'만 참여 가능하게 제한을 두는 게 차별이고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남성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솔직하고 공감 가능한 이야기가 나와 참여자 모두 만족했다.
- 인구 2만의 소도시이자 1차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인 농촌에 사는 여성, 청년이기에 불평등함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있음. 예를 들어 농사도 짓고 집안 일도 해야 한다. 또 여성이 이장을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도 있고,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가 지역에 없어 30분 이상 차를 타고 외지에 나가야 한다.
- 지역, 특히 농촌에 살거나 일하는 게 도리어 장점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년으로 어딜 가든 환대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많고,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 우선 영수증 증빙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편했다. 그동안 이런 모임이나 간담회 등을 사업적으로만 하다보니까 회의록 작성, 지출 증빙 등이 머리 아파 자발적인 이야기 모임을 생각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해보니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나이 제한 없이 여성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여는 모임으로 하려고 했다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30살 넘어가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수도 있다고 제안을 줘 만 29세로 나이제한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좋았다. 향후 2회~3회 정도 모임 후 세대 모임으로 중장년 여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파티를 기획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이야기 키트(6X6 질문게임)가 많은 도움이 됐다. 처음에 어떤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고민이 됐는데, 주사위를 던져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자연스럽게 속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이야기모임 취지에도 맞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깨알같이 챙겨준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이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 연도에도 진행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생각이 있으며, 6X6 게임 같은 키드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농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장단점

- 장점 :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로 봐준다. 여유롭고 사람들이 정이 많다. 노동력 부족으로 다양한 일들의 기회가 많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회는 많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다.

- 단점 : 청년을 위한 혜택이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분위기가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의료시설(치과, 산부인과)이 너무 열악하고, 교통시설이 불편하고, 마을 자체가 CCTV와 같은 분위기여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단절을 겪기 쉽다. 예를 들어 개방적인 모임에 참여했는데 청양이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에 끼기 힘들었다.

2. 마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불쾌했던 경험

- 터치나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많다.
- 공무원 남자 잡아서 시집이나 가라, 네가 안가면 노래방 안 가, 청양 남자 하나 잘 잡아, (화장하고 온 날)남자 만나러 가냐? 엉덩이 엄청 크다 등 너무나 자연스러운 외모 평가
- 여자가 무슨 이장이냐, 마을 견학 인솔하는 날 버스에서 틀어주는 선정적인 동영상,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갈래? 등의 발언

3.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

- 성희롱 발언에 안 웃어주기 : 웃음으로 불쾌함을 무마하지 않기
- 불쾌한 상황이 주변 사람에게 발생 시 오버에서 더 화내주기
- 높은 자리 올라가기
- 기쁘고 행복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주기
- 마을순회 성평등을 위한 강의(성폭력 예방교육 필수진행)
- 자주모이기
- 아~그렇구나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의 힘

27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박정호(옥천순환경제공동체)		
지역	충남 옥천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03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충북 시,군 단위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역량, 역량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의 역량 이렇게 기른다!
  - 경청하는 자세
  - 질문의 기술
  - 끊임없는 학습과 교육, 토론
  -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
- 개인과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는 조직문화
  - 새로운 생각을 반기고 경청해주는 문화
  - 동료를 신뢰하는 문화
  -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싫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가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 고민하고 지금의 나로 머무르면 안 되겠다. 동일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활동가들의 모임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함께 세우고 나의 모습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활동가로서의 품성도 더욱 갖춰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뒷담화나 비난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건강한 비판과 평가를 해야겠다.
-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틀리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으로 바라보자.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어렵다. 신뢰가 깨지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먼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한다.
-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음 한다. 고립되지 않게 관계 맺기를 잘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 마을 활동가로서 학습이나 역량을 높일 교육에 집중하더라도 조직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니면 결국 내가 그 조직을 떠나게 된다. 믿음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이 상하면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다. 내 요구만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기보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지 생각하게 되었다.
- 마을 활동가로 나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까? 역량 강화에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 여유, 관계의 고민,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에서는 조직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는 다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 선배활동가들의 활동 속에서 배우고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비전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하는 활동을 서로 응원하고 북돋아주며 한 미션을 완수해 나갈 때 성장할 수 있지 싶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상대방의 품성과 역량, 그 사람의 인생 등에 편견을 가지거나 질투를 하거나 낮게 보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내가 결론을 내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 나만 잘나고 나만 정답이면 결국 고립되지 않나?
- 의견이 있으면 경청해서 들어야 하고 99%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1% 가능성을 인

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가능성의 방향으로 가도록 들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함을 생각해 본다.

- 관계맺음의 기술과 지혜와 상대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새삼 고민하게 되었다. 조직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 조직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나의 태도,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배려, 인내심 등 이야기를 나눌수록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10년 후에 이뤄놓을 활동의 성과나 또는 10년 후에 내가 하고 있을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을 얘기해주시겠어요?
- 관계 회복을 위해 좋은 경험이 있으면?
-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활동가로서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 조직 내 갈등 해결 경험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갈등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28 20-30대 활동가들의 어려움과 고민거리

모임주최자	범키(충북NGO센터)		
지역	충북 청주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18		

20-30대 활동가들의 생활과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들어봅니다. 방식은 한 명 씩 돌아가며 최근 가진 고민거리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그 어느 곳보다 앞서나가야 할 시민단체의 조직문화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뒤쳐진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특히 젊은 활동가들이 떠나고 있다. 이제 그 조직문화를 만든 사람들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 좋은 활동가란 무엇인가? 활동이 곧 내 삶이 되어야 하는가? 나를 돌보는 삶이 우선되어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무엇보다 내가 소진되어서는 안된다.
- 활동가 개개인이 겪는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조직 내에서 홀로 소외되다 조직을 떠나는 젊은 활동가들이 많다. 이제 활동가도 연대할 때가 왔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조직에 대하여 앞서 나아가야 할 시민단체들이 너무 뒤쳐져 있다. 그로 인해 젊은 활동가들은 실망하고 떠난다. 왜 앞서지 못 할까? 크지도 않은 권력이 달콤함 때문인가?
- 활동가들의 삶 속 고민 이야기를 듣고 저의 고민 역시 말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공감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든 어떤 활동을 하든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듣고 소통해 나가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각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조직이 활동가가 많지 않고 특히 또래 활동가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함께 대안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혼자 해결하지 못 하는 경우가 안타까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는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다. 쉽지 않겠지만 돌아보려 노력해야 한다.
-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내가 원하는 활동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무리하게 소진시키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는 것, 활동과 조직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각자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전 공유 해보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다양한 방향,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문제에 치여 빛을 바라지 못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너는 지금 괜찮니?
- 당신은 당신의 활동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우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을까요?

29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최승희(이음마을학교)		
지역	대전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3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7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퍼실리데이터 기법을 사용해서 구성원들의 이야기의 끌어내 볼 작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아이스브레이킹은 원래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외부인(소속과 지역 모두 다른) 두 분이 안 오신 관계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보다는 감정카드를 사용해서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감정카드를 들고 그 감정과 관련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그라운드 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룰을 적어 투표하였습니다.

- 주제로 선정한 느슨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주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가치' 카드들을 내어 스스로의 '활동'들을 풀어보았습니다.
- 그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구성원들의 투표로 두 개의 가치 카드를 골라 네트워크 활동인 것, 네트워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의 두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나 결집, 조직이 단단해지는 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숙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성찰 없는 조직은 카르텔화 된다. 개인과 조직의 끊임없는 성찰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
- 활동가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 자본주의의 핵심 미덕으로 보이는 '생산성'을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꼭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관심과 활동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네트워크를 위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느낀 자리였다. 사회 활동에 대한 노동 보상은 없고 오로지 사회 변화를 꿈꾸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참 대단해보였다. 힘들다는 와중에도 보람이 섞여있는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
-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표현하고 분류함으로써 나의 활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활동가에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를 뽑고 이유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좋았다.
- 그냥 평소 생각했던, 나 홀로 생각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모임 자체가 편해서 더욱 좋았다.
-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활동들을 이야기 나누고 어떤 일들을 일상에서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생소한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의 주요덕목이 '용기'라는 것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당신은 어떤 일에 용기 내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 왜 활동하시나요?
-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0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고은아(풀뿌리사람들)		
지역	대전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06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합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내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 나는 어떤 활동가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 늘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 자신의 삶이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새벽녘 산책하는 사람

2.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

- 돈 보다는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고향에 가서 좋은 일을 만들고 싶다.
-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되고 싶다.
- 지역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지역다운 것을 찾아내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싶다.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계속 만들고 싶다.

3. 게속 활동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한다. 활동에 따른 보상과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움이 따라야 한다.
-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내가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 한 사람의 한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함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함께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직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31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이은하(작가)		
지역	대전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90		

자기 일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가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필요할 때 결합했다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계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이후의 일하기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느슨하게 일한다는 것은 보목이 다른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 생애사 쓰기를 사업으로 하겠다는 목표는 잠시 미뤄두고, 끄집어내지 못 했던 내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기쁨을 충분히 누려보자.
- 너무 느슨해져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느슨한 네트워크가 의미 있을 것 같아 모임에 참여했지만, 무엇인가 했을 때 느슨하게 느리게 여유 있게 진행하다보면 일의 추진이 늦어지고 해이해져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 활동의 기획자과 실행자, 그리고 참여자 두 가지 입장과 관점에 따라 활동 내용과 방향이 갈라질 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How를 찾아야 하는걸까? Why를 봐야 하는 걸까?
- 바쁜 생활 속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 느슨하게 함께 하려면 다양성의 인정과 함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 이야기박스의 도구가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느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이 다양하고 그걸 정리하니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방식이 명료해졌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6*6 질문게임으로 모임을 시작해보면 이야기를 풀어가기 좋을 것 같았다.
- 직업은 소명 의식을 갖고 해라.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 느슨하게라는 단어가 매우 우리 단체에 성격에 맞는 것 같다. 느슨하게는 각자가 할 만한 정도의 일이고, 구성원이 합의하고 보폭을 조정해가는 것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 단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느슨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면 구성원이 합의해야 하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 사람이 셋이 모여 일을 도모하는 것과 열 명, 백 명이 모여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 아직은 활동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 하고 있지만 뭔가 함께해서 조금은 내 자신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작지만 사회의 변화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 한국의 미래 변화를 위해 전국 활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활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2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이재순(요리하는마을공동체 붓다)		
지역	대전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9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97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 개인과 조직은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정보를 나눠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할 듯 하다.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시기적절한 토크 주제였다.
- 개인과 조직이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본인 스스로 얻어야 한다.
- 유연하고 열려있는 조직문화에서 나의 성장도 있다고 생각한다.
- 개인이 조직과 화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모습들을 개인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려면 사람들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생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배려가 없다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후회되는 일.. 회의에서 나오는 부모님 이야기에 순간 울컥해진다. 좋은 엄마로서 성장하며 조직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할 듯 싶다.
- 흥이 나는 모임. 참여자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신바람 나는 회의 문화가 너무 좋았다.
-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자.
- 세대 간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연령별 모임을 만들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을 대변해 엄마에게 먼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적어본다.
- 지속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인간의 본능(실적에 대한 대가)에 충실하면 큰 댓가를 주지 않더라도 재미나게 지속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에게 조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삶의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나만의 철학은 무엇인가?
-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33 20대 여성 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야기

모임주최자	김소(청주청년회)		
지역	충북 청주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02		

젊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 중 선배들은 항상 활동가들의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곤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일까? 20대 여성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모임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질문지의 물음에 답변을 하다가 연이어 이야기하게 된 주제다. 활동가란 무엇인가, 임금을 받아야만 활동가인가, 직장인과 구분이 필요한 것일까? 단체에서 일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지만 수당이 나오지 않는 문제) 활동가로 스스로를 규정짓는 이들의 생각이 다양하다.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을 것 같다.
-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활동가로 규정짓게 된 때와 계기, 동력원 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잡게 되는 것 같다.
-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가? 위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내 행동의 결과가 훗날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이야기하며 행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어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여성활동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자의 단체를 넘어 지역,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지역의 젊은 여성활동가들은 에너지가 있다. 이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지속가능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여성활동가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 지역에서 여성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그리고 여성활동가로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 등이 대답을 들으며 난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았습니다.
-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가치관과 신념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 질문지가 너무 좋았다. 조직보다 나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니 생각이 더 깊어졌다. 활동하는 건 '나'이다.
- 대부분의 내용이 좋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와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가?
- 나는 활동가인가?

경상권 지역

34. **상주** | 지역 청년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책 만들기
35. **구미** |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보다 더 당사자성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은?
36. **안동** |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37. **부산** | 부산 사하구 마을활동가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대화
38. **부산** | 우리가 활동하는 공익적 가치를 왜, 그리고, 어떻게 알릴까?
39. **부산**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활동가'로 살아가는 방법은?
40. **대구** | 5년 뒤, 활동가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41. **대구** | 건강한 비영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42. **부산** | 시민운동의 새로운 리더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43. **부산** | 마을과 미디어를 연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44. **대구** | 조직의 갈등과 부조리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

34 지역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만들기

모임주최자	임경식(상주의소리)		
지역	경북 상주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6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시간을 보낼 콘텐츠가 없어서 도시로 나가는 청년, 다양하지 못한 일자리와 불안감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 등 지역에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처음 참여해 본 정책토론회 후기 공유
-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 생각보다 컸던 지역청년들의 문화적 갈증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퇴근 후, 주말에 놀거리가 없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간이었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발언한 주제에 대한 덧붙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추후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 상주시에서 청년들만이 모여 분과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여전히 많으니 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자리가 필요하다. 상주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나 그 목소리가 공론화되지 못한다. 그 목소리들을 모으기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나야 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상주에 만드는 청년공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돈 걱정이 없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 왜 상주 청년들은 참여도와 목소리가 낮을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다른 지역의 활동가님들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사는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 지금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즐거운 점은?

35 아동청소년 NPO활동가의 현재

모임주최자	고지여행자(아동인권강사)		
지역	경북 구미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4		

개인적으로 창업 모색과 사이드 프로젝트 고민 등 지속가능방향에 대한 실천을 해오고 있으나 움직임에 비해 지원과의 연결이 순탄치 않아 같은 분야 일을 하는 활동가들은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의 그들을 알려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봉사활동가라도 각자의 역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가'라는 언어가 조금 낯선 거예요. 아동인권강사, 동반자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NGO활동가 타이틀을 더한다고 플러스적 지원이 될까?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 알지 못 하니까요.
- 지니 그림책 연구소를 해요. 청소년 상담사로서 2015년부터 진로 캠페인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일단은 요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지역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데 지역사회가 빠진 느낌이에요. 활동, 교육만 있지 지역사회가 있나 싶어요. 어제 수업에 들어갔다가 느낀거지만 아이에게서 학습된 감정을 느껴요. 학습으로 경청해야지, 존중해야지. 소통은 너무 잘 알고 있

죠. 하지만 표현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걸 온몸으로 느껴요.

-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마을 초등학교의 케어가 필요한 친구를 발견한 적이 있어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복지사님께 상담해보기로 했는데 도와주려고 해도 보호자, 미성년자 등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이 마을배움터를 지정해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활동가들의 활동을 이런 공간과 이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환경을 위해서 실질적 변화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2020년과 각자의 활동 모두 소중한데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만 꾸준히 해오다 새로운 소리였어요. 필요는 느끼지만 그냥 봉사활동 개념이었잖아요. 새로운 단어,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해서 좋았어요.
- 몰랐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현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이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 NPO활동가의 활동 중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의 실제 활동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모임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 분야의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이전에도 들었지만 '그냥 뛰어들었다'는 말을 오늘도 들었다.
-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을 하겠다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려는 열정이 좋았습니다.
- 현재 활동가들이 만난 아동, 청소년들의 필요한 부분들,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연결해나가고 있으십니까?
-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역에서 활동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아동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는?

36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허승규(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지역	경북 안동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62		

경북 안동에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을 초대합니다!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을 지역사회의 실정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역 활동가들 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에 함께해요.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 당신에게 쉼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있나요?
- 청년세대가 활동가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같이 이야기를 나눈 활동가분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 활동가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었고, 활동가만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국 관계와 공익을 위해 마인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복지 종사자의 복지를 생각하기 어렵듯 활동가의 여건에 고민할 기회가 잘 없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다.
- 고민을 함께 나누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잘 발견하고 충분히 협업(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현재 몸 담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개별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역이 가지는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는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젊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또 젊은 청년들이 활동가의 삶에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과연 활동가의 삶에 만족하는가?
- 활동가분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당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7 부산 사하구 마을활동가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대화

모임주최자	이승민(하루마을문화교실 교실지기)		
지역	부산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0		

부산 사하구 마을활동가 관계망 만들기. 사하구의 마을활동가, 마을교사, 마을교육활동가, 청년활동가가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노인과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 마을단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무엇인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한 각기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을을 꿈꾸고 사는 모습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자주 만나야 한다.
- 해당 마을 안에서만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마을과 연결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눠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해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사하구의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잘 살려서 다음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노인과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마을 꿈꾸는 30대 청년의 야망,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가 필요하다.
- 은퇴할 시기가 된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연결시켜 그들이 서로 잘 하는 것을 서로 교환하며 윈윈할 수 있는 마을공동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 사하구 하단동의 고유한 마을콘텐츠는 무엇일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을수도 생태공원, 복원으로 재첩이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마을활동가로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 마을 활동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왜 주민을 꼭 조직화해야 하는가?
-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마을활동가 및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38 우리가 활동하는 공익적 가치를 왜 그리고 어떻게 알릴까?

모임주최자	임선주(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지역	부산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4		

부산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각자 어떻게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있고, 왜 공익적 가치를 알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나만의 출퇴근 의식은? 근무 모드와 비근무 모드를 가르는 기준은?
- 공익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건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공익적 가치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바위를 깎는 빗방울처럼.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활동가들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인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의 사회를 상상하며 활동해나간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다.
- 나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 낮과 밤,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일하고 있다. 나 스스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나누고 싶다.
- 공익적 가치에 대해 나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수 있었다. 공익적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도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라도 공적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공익적 가치가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서 남도 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익활동가도 특출나거나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퇴근 후나 주말처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일과 일상, 활동가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가 잘 구분되지 않는 활동가들에게 유의미한 질문이었다. 또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 공익적 가치를 왜 알리려고 하나는 주제가 인상에 남았다. 역사는 나선형의 달팽이 길과 같고 절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공적가치 또한 그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자. 공적가치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변하고 나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 우리는 사익을 중시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공익적 가치는 누구에게나 있다.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요소가 되고 있다. 5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상상하지 못 하는 것처럼 5년 후의 나도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하길 바란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 여러분들은 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언제까지 활동가를 할 거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39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활동가'로 살아가는 방법은?

모임주최자	굿데이(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지역	부산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900		

부산에서 동포를 만나며 살아가는 활동가들, 그리고 동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듬이 있는지, 어떤 기쁨과 앞으로의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개별화된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 알아가고, 힘들 때 서로 의지 하며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을 돈을 내고,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만남이 중요하고 이야기를 나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 동포 활동가는 의지만으로 힘들다. 오고가며 경비가 들고 시간을 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기억해주세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어떤 교류와 만남이라도 사람을 만나 이해를 하고 서로를 알아야 한다.
- 조선학교에 대해 알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며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 다양한 모습의 교류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존중하고 배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미래 남북교류의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많은 교류활동이 있어야 한다. 만나야 보이고, 만나야 공감하고, 만나야 방법들이 생긴다.
- 조선학교에 대해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자주 이런 모임들을 열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만남이 중요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공연으로 소통하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과 같은 것이다. 젊은 활동가 유입은 그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하라고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우리 동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류의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 이중국적, 재외국민 등 아직 낯선 국적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조선학교를 아시나요?
-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조선학교를 널리널리 알리고 싶고,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많이 배우고 싶다.
- 당신은 조선학교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재일조선인, 그들은 우리와 다른가요?
- 각자의 추구하는 모습은 달라도 하나의 모임으로 하나의 일들을 함께 해냈으면 합니다. 따로 또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 어떻게 하면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특히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

40 5년 뒤, 활동가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모임주최자	박성미(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	대구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7		

대구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모임을 진행합니다. 5년 뒤의 나는 여전히 지금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 나는 사무국장이 되었을까? 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을까? 5년 뒤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작 그 안의 활동가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에서 활동가인 '나'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며 활동가인 나의 모습 회고하고 활동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할지, 활동의 지속을 위해 조직과 개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의 필수 역량은 무엇일까? 소통과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논리적이고 지식의 양으로는 부족하다. 설득하고 시민의 언어로 풀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 활동가 네트워크는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조립

적 형태의 조직, 업무의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활동의 멀티태스킹이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내(우리) 미래는 꼭 찾고야 말거야.
- 계속하고 있을 수 있을까?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러한 새로운 조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더 늦기 전에 뭔가를 시작해야겠다.
- 현재의 나를 넘어서야 계획을 세우자.
- 운동, 활동을 떠나 오늘 우리는 5년 뒤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시도해야 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미래가 없을 것 같지만 얘기하다보니 씨앗이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 586이후 현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운동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사회적 공감능력과 소통능력, 센스가 필요하다.
- 낡은 것들이 사라져간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시간이다.
- 성장의 기회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우리의 판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뭘 할까요?
- 활동가 그만두면 뭐할까요? 활동가를 그만둘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을까? 586선배들 어떻게 부셔야 하나?
- 활동의 새로운 형태, 무엇이 있을까요?

41 건강한 비영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모임주최자	비둘기(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	대구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61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규나 규칙 시스템이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조직문화는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은 한 조직에서 오래 있거나 그만두거나 선택이 많지 않다. '활동의 장'이 제한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조직의 형태와 방식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비영리 조직운영이 가지는 어려움이 다 유사하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은 멈출 수도 없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조직의 건강성과 개선점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굳이 세대를 이야기하며 범주화된 사람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
- 비영리기관에서 채용과 더불어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조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중간 관리자로서 선배 활동가와 후배 활동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먼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비젼과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
- 혁신가들은 더 믿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일을 줄이자. 그래야 우리 모두 행복해진다.
- 조직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조직문화 개선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NGO가 지속되듯이, 조직문화 개선도 그럼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NGO로 나아갔으면 한다.
- 세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 조직구성원 간 신뢰와 정보공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가 필요하다.
- 조직문화는 유형이고 무형으로 존재한다. 특히 비영리영역은 제도와 규정보다는 신뢰형성이 1순위이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대의를 위한 삶이 지금 가능한가? 비영리단체 활동이 '사무실'이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마는 것 같다.
- 출퇴근 시간은 왜 지켜야 하나? 사무실은 꼭 필요한가? 21세기 초연결 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든다. 행정 기관과 기업들의 조직운영 매뉴얼과는 다른 비영리 영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업무 매뉴얼과 일의 방식이 필요하다.
- NGO운영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를 터놓고 대화로 풀어낸다면 서로의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

을까?

-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개개인의 행복이 없는데 사회운동이 무슨 의미냐라는 이야기이다. 대의만을 쫓으며 개인의 행복을 등한시했던 조직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매뉴얼과 규칙은 가장 나중이다.
- 더 좋은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이고 싶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의 장이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번아웃을 극복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동료들을 유지하고 싶어요.
- 조직 안에서 나는 소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 활동가의 노동자성은 왜 출근할 때만 인정될까? 출근할 때는 노동자! 퇴근할 때는 활동가?
-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생존, 어떻게 균형을 맞추십니까?
-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조직의 형태와 방식은?
- 비영리단체의 출퇴근 시간, 시간외 근무 보상체계, 금전이 마련되지 않는 조직은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뢰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42 시민운동의 새로운 리더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모임주최자	최철원(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지역	부산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7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9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시민운동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인입할 것인가?
2. 시민운동의 새로운 리더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3. 시민운동에서 훈련된 리더들을 향후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으로 자리잡게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근본적 고민은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 발굴, 육성 시스템 마련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모임 참가자는 지역 시민사회 주요 리더(40대 후반)로 구성할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청년세대 발굴, 리더로 육성, 향후 자원화 등 세 꼭지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한후,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분석, 그리고 대책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볼 것입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고민을 시민사회 내부에 이슈화하고 지속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현재와 같은 경직된 구조의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속가능한가? 10년 뒤를 기준으로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가?
- 단체활동을 평가할 때 상근활동가들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평가를 비중있고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 내가, 우리 단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거라 생각하는 부담감, 자뻑과 이제는 결별합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차기 리더십을 준비하고 차기 리더십으로 대외적 활동 권한과 역할을 높이고, 어려운 숙제지만 급여수준을 더 높여 노동환경을 지금 단계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재정, 교육, 육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간 활동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 오랫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 새로운 리더십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개별 단체, 개별 상황에 대한 정보보다는 NGO 생태계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차기 리더십 육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 임금을 포함하여 노동 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상근 인원과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상근자, 사무처 중심의 운동이 아닌, 적극적 시민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보장되는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주체가 행복하지 않은 운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조직을 평가할 때 상근활동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나? 항상 사업과 행정에 대한 평가만 한다
- 조직의 형태는 문제가 없나? 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활동가 건강에 관심 가져야 한다. 고정적인 일을 절반으로 줄여보자. 재정이 중요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방안을 생각하고 계획 수립해야 한다. 상근자와 사무실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활동가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 활동가에게 미래 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현 리더십의 연령구조에서 20~30대 청년활동가를 영입하기 위한 경로와 조건에 대한 고민이 든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구조의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속가능한가? 10년 뒤를 기준으로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가?
- 도대체 언제 노세요?
- 시민단체에서 훈련된 활동가가 점점 없어지는 것과 전업하는 것,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단체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할까.
- NGO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의 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활동가는 어떻게 성장하나요?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어떤 프로그램,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요?

43 마을과 미디어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마을미디어활동가들의 대화

모임주최자	정수진(마을미디어연구소)		
지역	부산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920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그 고민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마을과 미디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과제, 함께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미디어를 통해 공동체를 보게 되고 가꾸게 되는 것 같아요.

- 마을미디어를 지속하려면 활동가, 공간, 재정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같은 고민을 가진 우리가 연대하고 교류하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활동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마을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사람, 지원, 교류이다. 일단 만나야 한다. 외로운 성 같은 미디어 활동가. 왜 미디어를 하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
-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활동가와 공간, 재원, 교류가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와 공동체는 사람과 지원, 소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활동가로서 공동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디어는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미디어 활동가를 많이 육성하고 마을미디어들끼리 교류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마을미디어에서 '마을'과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미디어가 꼭 신문, 라디오, 책이 아니어도 된다. 마을을 구심점으로 모일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마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마을미디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것인가? 무작정 지원을 받는 것이 능사일까?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 고립되어 있지 않나? 마을미디어들끼리 교류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마을미디어는 지속가능하다. 마을미디어는 공동체 활동이다. 마을미디어는 미디어가 목적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
-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적지원 어디까지 필요할까? 마을미디어 활동가는 외롭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는 공동체 활동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간은 공적으로 생겨야 하나, 아니면 사적으로 생겨야 하나?
-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거점 공간으로서의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가 양성이나 활동가 발굴 어떻게 할까?
- 활동가가 중요한 자원인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나? 활동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까? 마을 내에 있는 활동가와 준비된 미디어강사가 함께하는 대안도 좋을 것 같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은 뭔가요?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활동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각 공동체나 마을미디어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활동가들끼리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을에서 활동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활동 공간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44 조직의 갈등과 부조리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

모임주최자	향미(단체활동가)		
지역	대구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52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던 시민단체가 어느 새 보수화되어 있다.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의 활동가들은 후배 활동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과도한 개인주의라 여기며 사회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밖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치지만 조직은 부조리로 가득하다. 이런 문제는 몇몇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과 함께 각자가 겪고 있는 조직 내 갈등과 부조리를 공유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시민사회단체는 활동가에게 더 이상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워라벨이다.

- 공익활동가도 노동자다. 헌신을 좋아하는 국처장들이여, 국처장들끼리 모여서 일해보시는 건 어떤가?
- 노동단체에 노동권 없고, 인권단체에 인권없고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할 때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처음 이 주제를 생각하고 신청할 때 남들에 비해 너무 강한 어조로 쓴 건가 싶어서 약간 걱정을 했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자기검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줘서 안심했다. 열 사람이 모이니 이야기가 풍성하다. 갑질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반갑고도 충격적이다.
- 근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주 주말 출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못 들어온 듯 하다.
- 나는 단체를 그만뒀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나는 더 이상 활동가가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은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 참 말하고 싶었던, 하지만 말할 곳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대화의 장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 이 주제를 처음 듣고는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꼭 필요한 시간(주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직문화라는 것, 이름도 참 별로다. 조직이란 게 왜 있어야 하지?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자기 성찰 없는 고연차 임원급들이 조직을 좀 먹는다.
- 어느 곳에서나 갈등은 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런 소통구조가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활동가들은 대부분 번아웃 상태이다. 그나마 휴식할 수 있는 길은 퇴사뿐. 하지만 퇴사가 답은 아닌 것 같다. 퇴사 후 새로운 비전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여러분은 부디 존버하시길.
- 밥 한 끼와 차 한 잔으로 몇몇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이 조직의 의사결정체계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결단이 된다는 건 참 우습다.
- 이야기를 할수록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누가 더 힘든가 내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한 단체에서 오래 일한 활동가는 큰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 대표, 임원들은 그저 문제없이 단체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같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워라벨이라는 말!
- 어느 단체의 이야기 중에서 대체 휴뮤를 안주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들고 갔다는 일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난 왜 그러지 못했나!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 자기성찰이라는 것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10년 후, 20년 후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인가?
- 오래 일한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비슷해질까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성찰이 없다면 나도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시민단체에서 일어난다는 게 충격적이다.
- 한 발 물러서서 들어보니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만 위로받을 수 있다.
- 활동가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이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20년 혹은 10년 이상 일하고 공무원들이랑 교류가 많으면 어공이 될 수는 있다고 한다. 음...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조직인가?
- 활동가는 출근할 때만 노동자고 퇴근할 때는 노동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참 와닿는다.
- 노동단체에 노동권 없고 인권단체에 인권 없다는 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말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단체에 미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발성은 어디까지인가?
- 행복한가요 당신?
- 당신은 왜 아직 그만두지 않나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 만약 당신이 조직의 대표나 임원이 된다면 지금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들과 과연 다를까요?
-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꼰대가 아닌 합리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 펭수 좋아하세요?
- 워라벨 챙기고 계신가요?
-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부당함에 대해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나요?

전라권 지역

45. **광주** | 협동조합 임원과 모임지기들이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46. **여수** | 지역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47. **순천**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48. **남원** | 서로의 삶과 일상을 지키고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는?
49. **남원**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50. **군산**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활동가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건강한 방법은?
51. **광주** | 엄마 활동가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힐링 노하우는?
52. **익산**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53. **광주** | 지방에 사는 독립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방법은?
54. **나주** |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방안에 대하여
55. **광주** |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56. **광주** | 마을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57. **순천** | 지역활동가들의 지역발전 기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안은?
58. **광주** |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59. **익산**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60. **광주**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61. **전주** | 활동가 건강곡선 그래프 워크숍

45 협동조합 임원과 모임지기들이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임사랑(무진아이쿱생협)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11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9		

협동조합 임원과 모임지기들이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협동조합 7원칙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협동조합 7원칙을 함께 지켜나갈 협동조합 주민 만들기는 무엇이 먼저일까?
- 다양한 연령대, 세대 간이 느슨하게 연대하며 협동조합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다.
- 협동조합의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협동조합이 살아 움직이려면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려면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처음 신입대의원으로 참여했을 당시부터 기억을 떠올려 신입대의원과 기존대의원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질의응답식 콘텐츠로 잘 풀어진 것 같다. 작년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활동했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협동조합의 가치와 생협 사업을 연결시킨다는 것에 내가 은연 중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고 친밀감이 느껴져 그 내용을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 대의원들에게 생협에 관심과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의원들에게 열정과 노력이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 생각이 같은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생각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나? 본인들 필요와 요구만을 해결되면 주인 의식은 아니여도 책임감은 생기지 않을까?
- 생협에 가입해서 생협활동을 경험해보면 생협 사람과 그냥 소비자로 있는 사람과 차이는 있지만 누가 더 나은 사람은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연대하면 좋겠다.
- 서로 알아가고 협동게임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알아가면 되는데 그럴 때 마음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 완벽한 소통은 진정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 대의원을 만들어 협동조합을 공유하고 함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싶지만 소비자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먼저 알고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비의 필요성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다. 그래서 교육, 만남, 소통이 필요하다.
- 대의원 모집 후에 대의원 역할을 환기시켜주는 놀이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합 모임과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와 애정을 형성한 후에 대의원 모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
-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교육, 훈련 사업 중 하나인 대의원놀이터에서 조합원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 매장에서 대의원을 만나며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이야기했더니 어느새 성과를 경험했다. 대의원 놀이터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조합원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활동과 교육 훈련 방식의 순환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조합원에 교육 훈련한다. 그런데 항상 못 들었다, 이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의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가치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하고 있는 소통 방법을 조합원이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 한다면 어떤 이유일까?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로 조합원을 만나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인가?
-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조합원 특히 대의원에게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내용보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수렴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 제시 방법을 좀 더 세련되게, 충돌을 잘 조정해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치유센터 전망에 대해 아이쿱에 큰 구멍이 되지 않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희망적인 의견들이 있다면 듣고 싶다.
-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덕목이 있을까?
- 자원활동가를 관리한다는 건 어렵고 그 사람의 주체성을 섣불리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조합원은 가입 문턱이 높으면 가입을 안 하고, 가입 문턱이 낮으면 책임성이 없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
- 협동조합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느슨한 연대는 협동조합 기본 원칙에서 시작하는데, 그냥 소비자 조합원처럼 협동조합에 관심 없고 소비만 하고 싶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동료가 있다면?
- 협동조합 7원칙을 함께 지켜나갈 협동조합 주인 만들기는 무엇이 먼저일까?
-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느슨하게 연대하며 협동조합 활동을 이어가는 방법은?

46 지역 활동가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김준완(여행자라운지)		
지역	전남 여수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4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여수, 순천, 광양)에서 저희의 시도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을 듣고 싶은데 홍보라든지, 참여자 모집이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번 발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유식, 아동 영양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베베키친', 텀블러 대여를 통해 일회용품 적게 사용하기 환경운동을 하는 '짐이지', 지역관광자원의 활성을 통해서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행자라운지' 이렇게 세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저희 활동을 좀 더 여러 군데 알리기 위해 평창에서 진행된 '베터투게더챌린지2019' 참여 후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지역 내 저희

와 비슷한 활동이나 공감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지 고민할 예정이며, 저희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얘기 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여행자라운지 : 새로운 지역에 이사 온 이후 활동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그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방법이나 시도들이 있었으면 한다. 그 시도 중에 하나로 인재풀 리스트 그런 게 있었으면 한다.
- 짐이지 :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치지 않았으면 한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베베키친 : 지역 내 신문이나 언론 이런 곳에서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나 기획물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여행자라운지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여행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평창행사는 정말 좋았다. 진짜 주변에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진짜 신기했다.
- 평창 베터투게더챌린지 참여를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나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대신 이야기만 나누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다.
-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시행착오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가 활동하는 게 정답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지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평창행사는 너무 좋았다. 본의 아니게 수상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경험이었다. 내년에도 진행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일단 같이 평창행사를 준비했던 분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야기 모임도구로 준비된 게임과 간식이 인상 깊었다. 지역 내 언론이나 신문사에 기획 기사 같이 활동가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써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공감간다.
- 모임이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준비된 게임과 간식이 매우 좋았다. 게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모임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 게임은 두고두고 쓸모가 있을 것 같다. 평창행사 준비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과정은 매우 좋았고 재미있었다.
- 간식과 게임이 있는 줄은 몰랐다. 게임은 다른 모임에서 다시 활용하고 싶다. 솔직히 평창행사 이후 약간 진행되는 일이 정체된 듯 한다. 다시 정신 차려서 해야겠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여러분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참여자가 잘 모집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시나요?
-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행사나 일을 진행할 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거나 남기시나요?
- 내가 하는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나요?

47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조연수(에코월드공정여행협동조합)		
지역	전남 순천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4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8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모임입니다.

48 서로의 삶과 일상을 지키고 개인과 공동체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는?

모임주최자	더기(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지역	전북 남원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3		

지역의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하기 위해 모인 남원 청년들이 아래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1) 나는 어디서 무얼하고 살고 있는 사람?, 2) 내가 원하는 지역사회(남원)는 어떤 모습?, 3) 내가 주도적으로, 혹은 참여해서 하고 싶은 활동은?

함께 이야기나눌 주제는 서로의 삶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 균형을 위해, 가볍지만 진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까?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들이 많은 동네에는 송전탑이 없다.
- 꼰대, 계급, 차별이 없어지면 좋겠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 나와 내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우리끼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세대와 함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교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사례를 거창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눈치 안 보는 지역사회는 언제쯤 가능할까?
- 각자가 바라는 지역사회의 모습과 활동이 다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내가 원하는 지역 사회는 선을 긋지 않으며 그냥 그저 그런 관계이기보다 서로에게 의지와 위로가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지역에서 각자 원하는 사회상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각자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서로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 평등한 조직, 함께 살아가는 사회. 삶을 보고 일을 만들어가자.
-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평등한 게 아닌데.
- 나도 이제 활동가 영역에 발을 들인 거 아닐까? 이 아저씨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평등한 공동체는 어떻게 동시에 평화로울 수 있을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평등한 공동체에서 평화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란?
-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이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평등한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 각 활동가들이 꿈꾸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한 사회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49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이창림(산내소식지 편집위원)		
지역	전북 남원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5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어떤 필요나 사안이 생길 때 모여 이야기 나누고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삶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연대체가 있다기 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른 연결의 형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번쯤은 특정 이슈가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임과 개인들이 꿈꾸는 산내면, 남원시,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활동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가야 할 지, 무엇을 먼저 할 지 궁리하려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느슨한 네트워크에도 만남과 대화가 필요한 적당한 시기가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주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급하게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

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할 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첫모임이어서 각자의 활동에 대한 지난 이야기가 주여서 앞으로의 모임이 기대된다.
-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모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서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공유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아주 오랜만에 지역 활동가들과 자신의 활동과 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궁금해할 수 있어 좋다.
- 많은 모임, 동아리, 단체들이 작은 마을이기에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아도 촘촘한 연결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확실한 연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에 오랜만에 단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공유하니 괜찮았다.
- 어쨌든 지역의 활동가들이 모이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애쓰지 않고 이런 네트워크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우리 주변에 있는 공적 공간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해갈까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할까? 필요할까? 그래도 밥이라도 자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지속가능한 일로 가고 싶다.
- 지역의 선주민 청년들과 어떻게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을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내가 하고 있는 모임의 성격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모임 취지에 따라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모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임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구나.
- 활동가 처우에 다들 만족하시나요? 지속가능한 활동가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 더 여유있는 지역 활동, 시민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는 활동가로서의 일을 어떤 마음과 에너지로 하고 있는지?
- 느슨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애쓰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50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활동가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건강한 방법은?

모임주최자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지역	전북 군산	개최날짜	2019.11.5.(화)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0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스런 트라우마를 흡수하거나, 때론 피해자들의 보이는 이기심이나 특정 사안에서 활동가가 배제되는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내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분분 국가폭력이라는 큰 사건의 해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가 깨질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동가 자신의 겪는 트라우마를 드러내기를 주저한다.

이에 용산참사,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쌍용차정리해고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비슷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공감하며, 더 건강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사건의 당사자가 중요하지만 특정 당사자를 영웅화하는 방식의 운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 활동가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일 수는 없다. 그러나 활동가 역시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경계와 거리의

간극을 인지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들의 트라우마를 흡수하고 또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안전한 공간 - 유사한 경험을 한 활동가들이 이해하며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자리 - 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가들이 도구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슬프다. 그러나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이 같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좋겠다.
- 피해당사자가 옳은 것은 아니고 활동가들이 끌려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과 사례를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다.
- 나는 국가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혹은 당사자가 아닌가? 마을주민으로부터 지킴이들이 도구화되는 상황에서 나는 상처받지 않고 받더라고 큰 영향 받지 않고 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
- 초대받고 너무 오고 싶은 모임이었다.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당사자들의 특징이나 현장의 운동단체들, 운동의 여러 흐름, 나의 조건(누구와 함께하는가, 함께하는 활동가가 있는가, 같이 안에서 사는가 등등)에 따라 현장의 고민이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폭력의 트라우마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거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모임이나 이야기 나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활동가들이 어떻게 마음의 어려움을 견뎌냈는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던 게 좋았다. 같이 서로 이해하는 지점이 있고 그 와중에 함께하는 것, 투쟁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게 위로가 되었다.
- 비슷한 고민이 서로 있구나. 구조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활동가의 다양한 세계,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 안에서 운동의 성공, 구호만의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야기 되어야 한다. 투사이미지로 특정 개인만 치켜세워지는 운동의 방식은 다른 주변을 배제시킨다.
-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정리된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당사

자들도 다 다르고 활동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당사자를 영웅으로 만들지 말자.

- 이야기 중 젠더, 나이, 위계에 대한 고민, 운동사회 안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정말 숙제인 것 같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우리는 왜 버티고 있을까? 우리가 버티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걸까?
-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한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거리를 찾아가는 것은 활동가 개인의 몫인가요?
-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다. 개인 활동가로서 운동 혹은 활동의 원칙을 만들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 활동가로서 자신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51 엄마 활동가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힐링 노하우는?

모임주최자	김세화(교육복지활동가)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12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07		

여성 활동가들은 가정에서 양육과 공동체에서 변화 혁신을 함께 추구해야하는 것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활동에 몰입하는 여성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의외로 '앵그리 맘'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지치기도 한다. 기혼 여성 활동가들의 현재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힐링 노하우를 나누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위해 여성 활동가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서로 보듬고, 또 게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본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가사가 힘들 땐 가족을 동참시키자.
- 내가 하는 일에 가치 높음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자. 가족에 대한 기대를 줄이자.
- 엄마의 욕망이 가족의 욕구를 앞서지 말자.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나와 아이의 가치관과 생각 포인트가 다름을 인정하고 내려놓아라.
-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 나를 바로 세우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자.
- 아이에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도움 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 지금의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복잡하고 힘들 듯한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면서 소통하면서 양육을 해야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잡고 있어라. 최고의 선이란 내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최고의 악이란 내가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인생의 방향, 가치, 철학이 중요하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엄마의 불안감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비난과 수치심을 주는 훈육을 하지 마라.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으로 고민과 즐거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 아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 나의 모습이 아이에게 투사되는 것을 보고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

52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권순표(사회적기업 운영)		
지역	전북 익산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3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3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진행자 1명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참여자에게 5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자유로운 토론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발언자에 대한 질문도 토론시간에 진행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외로울 때 하는 일은?
- 사람들과 공존하고 직원들과 공존하는 것은?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활동가인가? 활동가의 역할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기업의 대표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빠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활동가를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함에 괴리가 있다.
-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서류만들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사회적 가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 기업도 서류만 만들어서 낼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기업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 아직은 기업가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기업가 마인드를 세우기 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나를 먼저 세우고 마인드와 행동을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나만에 기준은 100% 영리도 100% 비영리도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의 자세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활동가에게 조직이란 어떤 것인가? 시작 전 질문으로 내가 활동가로 생각되었을 때 우리 조직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내가 기억하는 가장 미안한 사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질문이었다.
-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 당신이 생각하는 활동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53 지방에 사는 독립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방법

모임주최자	박수경(광산새일센터)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3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4		

지방에 사는 독립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방법에 대해 이야기나눕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 마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 직장 내 이기주의, 세대 간 갈등, 집단 따돌림 문화에 대한 생각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활동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즐겁게 활동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기.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올해 나의 행동 중 남을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오래 생각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나의 노력,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확산을 위한 나의 노력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 직장 내 민주주의를 과연 비주류가 만들 수 있을까?
-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 활동가에서 조직이란 어떤 의미일까?

54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방안에 대하여

모임주최자	박은주(나주시 공익활동가)		
지역	전남 나주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5		

공익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구체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논의하고자 합니다. 진행방식은 회의 가운데 각자의 의견들을 종이에 적고 의견을 발표하고 공통된 의견을 분석하고 실행가능한 일을 찾아서 의견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공익 활동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조적인 모임으로 발전 방향 모색할 계획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농촌마을 단위 쓰레기 소각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 공익활동가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활동가들이 공론화하고 토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임에 나와 그러한 활동들을 공유했었지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같이 했던 활동은 없었다. 이번 이야기모임을 통해 한 가지 활동(깨끗한 지역만들기 등)을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공익활동가로서 나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문제의 개선과 제도적으로 나아갈 방향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익활동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나주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 공익활동가로서의 활동 목표를 설정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민의 의식을 깨우쳐 주는 방법,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라도 참여해서 깨끗한 나주 만들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
- 공익활동가들의 공통의 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공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 활동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소속감을 갖게 하자. 환경에 관한 주민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마을 단위로 교육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환경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보자.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으며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인데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돈이 전혀 필요 없는 활동이나 구성원들의 모임 등 외부재원이 들지 않는 활동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해야겠다.
-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발을 맞춰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한다. 지속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와 수익의 창출구조로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 모임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시키기. 자유롭고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 동의와 합의 과정의 중요성 알아가기. 공적인 활동 계획을 위한 학습모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작은 마을 단위부터 실천해보자.
-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지고 현재는 섞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량을 함께 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궁금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를 전업으로 할 수 있을까?
- 돈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행복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 어떤 동기로 현재의 활동을 하고 있나요?
-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합치는 방법은?
-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 현재 하시는 일은 공익적이세요?

55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모임주최자	박형관(허니드론)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51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조직이나 인재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업이 필요하나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지속성, 연속성 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어 관심 있는 분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신 또는 조직의 활동 소개, 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가?, 느슨한 네트워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작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 협력을 통한 성장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눔을 실현하자.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양보, 협동, 정주성
- 배려, 소통, 정보교류, 친목도모
- 가치, 배려, 일
- 신규 창업자들은 사업진행을 위한 작은 연결고리는 필요한 것 같다.
-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마인드 찾기, 후회되지 않는 일과 협업을 통하여 이뤄낼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 내일의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게.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 당신의 하루 마무리는 어떠한가요?

56 마을 활동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모임주최자	이혜경(까망이협동조합)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9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9		

지역의 현안 문제를 마을활동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력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참여자 소개 - 인사나누기 (참가자의 현재 활동 영역과 위치, 역할)
2. 지역시민단체 활동 소개 (경과 및 활동계획)
3. 시민단체 활동과 마을(지역)의 문제와 연결고리 찾기(필요성)
4. 실행방법 찾아보기 (참여방법)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마을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
- 활동가로서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일단 서로 만난다. 소통의 시간을 확보한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논의를 통해 토론 후 답을 찾는다.
-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민이 의견을 모은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 같다.
- 늘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머물러있던 주제였는데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아!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내심 기뻤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뭉치면 가능하다는 긍정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 마을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연결고리를 알아봄으로서 우리마을의 현안인 비아저수지 환경개선에 대한 조언과 해결방법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하였다.
- 마을활동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 마을사람들이 마을 의제로 바꾸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해결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마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일상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 '올해 나의 활동 중 남을 위해서 해 온 활동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1년을 되돌아 본 기회가 되었다.
- 6x6주사위 게임 중 개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비아저수지 산책로 환경개선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봤고, 질문게임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았던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무고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고 다양한 마을활동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마을발전을 위한 이야기도 좋았지만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지금 활동가로서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요?
- 마을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 마을활동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57 지역활동가의 지역발전 기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안은?

모임주최자	강아지(대학교수)		
지역	전남 순천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9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6		

지역의 현안 문제를 마을활동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력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참여자 소개 - 인사나누기 (참가자의 현재 활동 영역과 위치, 역할)
2. 지역시민단체 활동 소개 (경과 및 활동계획)
3. 시민단체 활동과 마을(지역)의 문제와 연결고리 찾기(필요성)
4. 실행방법 찾아보기 (참여방법)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마을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
- 활동가로서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일단 서로 만난다. 소통의 시간을 확보한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논의를 통해 토론 후

답을 찾는다.

-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민이 의견을 모은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 같다.
- 늘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머물러있던 주제였는데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아!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내심 기뻤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뭉치면 가능하다는 긍정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 마을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연결고리를 알아봄으로서 우리마을의 현안인 비아저수지 환경개선에 대한 조언과 해결방법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하였다.
- 마을활동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 마을사람들이 마을 의제로 바꾸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해결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마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일상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 '올해 나의 활동 중 남을 위해서 해 온 활동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1년을 되돌아 본 기회가 되었다.
- 6x6주사위 게임 중 개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비아저수지 산책로 환경개선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봤고, 질문게임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았던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무고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고 다양한 마을활동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마을발전을 위한 이야기도 좋았지만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지금 활동가로서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요?
- 마을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 마을활동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58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

모임주최자	김태경(시민단체 활동)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415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앞으로 월 2회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토론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들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 더불어 커가는 세상. 활동가가 행복하면 조직도 살아난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무게나 소요시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많이 적습니다.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게 교육, 소통 등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 활동비의 지속적인 지급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활동에 앞서 준비되는 사항과 자격 사항들이 많고 제약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할당되는 일에 비해 여가 시간과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가치 있는 일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내 주변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는 게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익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활동의 네트워킹 형성이 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적 불평등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공익과 사익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 10년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실 건가요?
- 활동하시는데 행복하세요?
- 노년의 활동가 모습은 어떨까?

59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이진홍(익산희망연대)		
지역	전북 익산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8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81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의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해 진단해보고,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NGO, NPO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범주,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법률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
-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시민단체의 활동가 재생산산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20-30대 활동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활동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시민운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공익활동가의 일과 생활 균형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잦은 야근, 회의, 모임, 행사 등과 주말 근무다. 수당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대체휴무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4일 근무제와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 가치에 맞는 지원체계(기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시작해야 할 때이다.
-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로 인해 희망이 보여요.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지원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 공익활동가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기구도 필요하다.
- 공익활동가로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해서는 '직업적 인정'과 '사회적 인정'이 기본으로 수반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 현실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속가능함을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과 임금의 보장인데 개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사용 가능,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재단이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활동가가 힘들고 지쳐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개인과 단체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성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신입 활동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나도 변화에 적응해야겠다.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다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숙제인 것 같다.
- 광역자치단체마다 거의 NGO, NPO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은 없다. 전북지역 주요시민단체의 요구성도 높지 않고 지자체와 긴장관계도 이유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활동가 교육 등 역할을 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문제를 더 논의하고 싶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즐거우신가요?
- 10년 후 시민사회 운동과 단체의 전망은?
-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시민사회활동 퇴직 후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60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

모임주최자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	광주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3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395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문화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자유토론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특성, 자유의 조절 지점이 중요하다.
- 조직문화는 개인의 행동, 언어, 경험, 관심사, 신념, 가치 등에 의해 아주 다르게 형성되며 조직문화는 업무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요소이다.
- 세대차이 인정과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따로 또 같이의 중요성. 조직문화가 내 삶과 융화되어야 하지만 또 사생활과의 구분도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신념, 보람이 있어야 지속가능하다. 이를 지킬 수 있는 양심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필요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조직문화 혹은 근무환경은 업무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요소 중 하나이다. 조직문화에 따라 근로자(활동가)들 간의 관계, 일처리 과정 등이 원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교체되는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들의 열린 사고가 필요하며 특히 시민사회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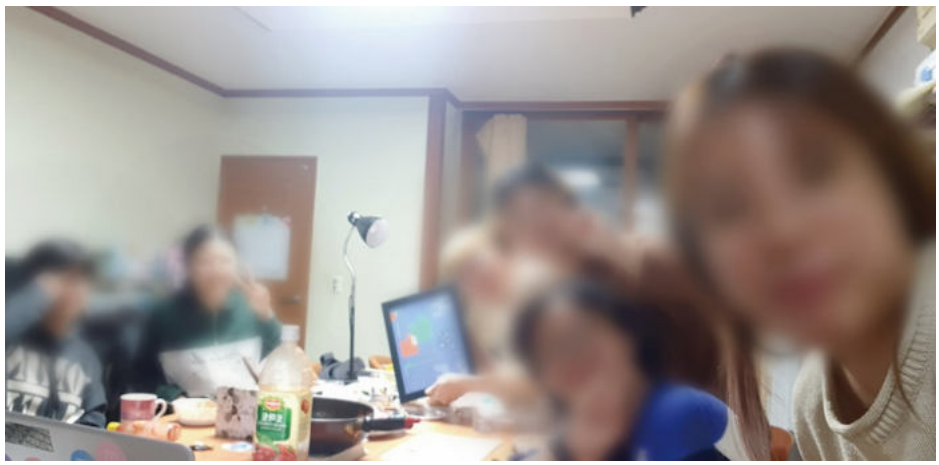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혁신과 진보를 외치면서 조직문화는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생각봐야 한다.
- 활동가 한 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지도자, 팀의 주요한 결정을 만드는 위치의 활동가들은 조직의 방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다. 리더가 조직 내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개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 함께 협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여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의 평등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 등이 조화로워야 개인과 조직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 조직문화는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들끼리의 모임이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 협업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조직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 활동가는 근로자인가에 대한 선배, 후배 그룹 간의 입장 차이를 논의하고 싶다. 안식년 제도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61 활동가 건강곡선 그래프 워크숍



모임주최자	달리(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네트워크)		
지역	전북 전주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6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54		

활동가 각자의 경험을 말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활동가들이 건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활동가 건강곡선 그래프 워크숍〉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활동가 건강곡선 그래프는 인생곡선 그래프를 변주한 형태로, 활동가들이 활동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각자의 건강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며 자신의 건강이 훼손되거나 회복되었던 과정에 무엇(사람, 사건 등)이 있었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 활동을 통해 활동 과정에서 건강의 손실을 경험한 활동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문제지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목표를 찾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활동가 부고 소식을 듣고 난 후, 건강권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을 느낀 것.

- 활동가 건강곡선을 그려보며 정말 많은 활동들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
-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서 걱정의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건강 꼰대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던 한 활동가.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사실 최근부터 고민하던 것이 있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는데 미래라는 것이 원래 불명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활동하는 것(일)이 많아져 생긴 우울감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활동가이야기주간 자리를 가지게 되고, 활동가 건강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활동가 건강곡선까지 그려보니 그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분명 그래프는 굉장히 간추려지고 뭉뚱그려진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그간 힘든 순간들을 지나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활동한다. 나의, 너의, 모두의 행복을 사수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도 사수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많이 웃고, 많이 훌쩍인 것 같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타인의 입을 통해 한 번 더 듣게 되었을 때의 감상은 또 다르다. 막연히 다들 다사다난했다 생각하는 것과 사건사고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말이다. 좀 더 섬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 꾸준한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
-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며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느꼈다.
- 다들 각자의 길을 걷던 도중에 같은 길에서 만나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다. 쉬어가기도 하고 가끔은 뛰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는 그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가능성이 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챙기자. 강해지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자.
- 어떻게 하면 행복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사실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동력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일텐데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첫째도 둘째도 건강은 꼭,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활동가의 부고, 이건 정말 오래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활동가를 죽음까지 몰고 가는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활동가 한 명이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 나는 그때 학교에서 민중총궐기 가시화 유인물을 친구 한 명과 같이 자체제작해서 뿌리고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게 신기했다.
- '타인의 트리거'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기분이라 내 스스로에게 약간 화가 났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으니 좀 더 섬세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 서로의 트리거에 대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자.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준다.
- 활동가 한 명이 걱정하는 건강과 자살 얘기가 오래 생각해볼만한 얘기인 것 같다. 활동가의 죽음은 활동가에게 크게 다가온다. 일면식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럴텐데 주변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올까 생각만 해도 무섭다. 자살 생각이 들 때는 동료 활동가들을 떠올려야겠다. 서로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힘든 얘기를 어렵게 꺼내지 않아도 되는 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것. 일명 '건강꼰대'가 각 단체마다 필수로 한두 명은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내 건강 챙기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구성원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구성원들도 단체 내부의 건강꼰대에 대해 걱정해주고 하는 상부협업의 구조가 지속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활동가의 건강권 사수를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가능할까?
- 모두들 잘 잤나요? 지병이 있다면 약은 챙겨 드셨나요? 식사는 드셨나요? 아무래도 먹고 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듯 싶다.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아야 운동도 지속된다.
- 활동가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는가?
- 당신의 활동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동안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봤나요?
- 멘탈이 약해질 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해줄 수 있는) 격려의 말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 활동가들의 건강을 어떻게 서로 챙겨줄 수 있을까? 오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치지 않고 행복한 현재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강원권 지역

62. **원주** | 활동가가 보람있는 행사는 어떻게 만들까?
63. **춘천** |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춘천 지역 활동가들의 대화

62 활동가가 보람있는 행사는 어떻게 만들까?

모임주최자	박준희(사단법인 무위당사람들)		
지역	강원 원주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5		

〈그들의 감동, 나의 노동〉, 활동가는 가끔 '행사(프로그램)로부터의 소외'를 느낍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할까요? 행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활동가들의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요? 우리들의 행사를 기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되돌아봅니다. 다음 행사는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행사의 문제는 결국 조직문화가 원인이다. 조직의 원래 있던 문제가 행사에서 드러난다.
- 행사 참여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사 참여자의 인적정보와 태도가 중요하다. 정기적인 행사는 참여자들도 이미 행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좋지 않은 관례를 답습한다. 참여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키워드다. 행사 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 회고나 평가의 자체 기준을 만들자. 사회적 경제, 비영리 분야에 있으면서 행사 평가는 외부의 양적, 정량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행사규모, 참석인권) 준비할 때부

터 자체 기준을 만들자. 행사 목적을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다.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행사가 시민단체에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이 주제를 통한 깊이 있는 대화들이 더 많이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의지와 열정 있는 활동가,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역사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태 해왔으니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가의 목적, 의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 행사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봤다. 행사라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명확한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결국 비전이 조직을 움직이고 행사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 결국 모든 조직이 비슷한 상황이다.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다. 활동가라면의 접근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위치 역할부터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조직의 문제점. 운동성은 사라지고 행사만 남은 조직, 지역 시민단체 중 이런 문제를 겪는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세대교체는 잘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중간리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1세대든 젊은 세대든 서로 생각해볼 내용인 것 같다.
- 활동가를 활동가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토론했던 내용이 가장 좋았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믿고 일에 임하는 활동가가 아닌가 싶었는데 조직의 형태에 굳이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
- 세대교체를 위해서 지금의 세대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우리에게 행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사의 평가지표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 당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일하면서 즐겁나요?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진짜로 행복하게 활동하는 활동가, 존재할 수 있는가?

63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춘천 지역 활동가들의 대화

모임주최자	김윤정(나비소설컴퍼니)		
지역	강원 춘천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5명	모임개방여부	초대제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672		

우리지역 활동가들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 방법은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나의 활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연결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혹은 축적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와 같은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주제를 이야기모임 주제로 선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주최자 이야기 –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 지역의 활동가들이 공과 사를 넘나들며 즐거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일로만 얘기하기보다 사람에 관심 갖고 만나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 분야와 활동 단위가 다르더라도 좋은사람들과의 신뢰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정보 공유하기. 사회변화를 꿈꾸는 공통점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자. Social Designer&s Club(SDC) 모임 결성.
- 우리들의 활동 경험이 다음 세대들과 공유될 수 있는 구조 필요해요. 스스로도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요.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민학습조

직 움직여보기. 함께 하고픈 개인들에게 개방적, 신뢰적, 동참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이면서 유쾌한 분위기 만들어보기.

모임 참가자 회고

1. 오늘의 모임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 사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가끔은 쉼과 충전이 가능한 환경도 있어야 하고, 즐겁고 유쾌한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 중요하다.
- 환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정기적 모임 개최하자.
-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펼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게 필요한 일, 목마른 일에 접근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세상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큰 가치에 매달리다보면 정작 우리 사이에 갭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진짜로 연결되려면 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로 만나자. 오늘은 그런 나로 만나는 자리여서 좋았다.
- 지역 활동가들의 일상과 업무의 스트레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2. 오늘의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 맘 편한 활동 공간과 이야기 모임이 필요하다. 지역을 바꾸는 활동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방법부터 시도하기.
- 일이 아무리 성공해도 함께할 때 편안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게 너무나 적다.
- 각자의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던 실행해 보고싶은 사업 아이디어와 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시간이었다.

3. 오늘 모임 후,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진짜 시민이 되어 간다는 것, 그 노력과 배움을 함께 나눌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그대의 안식처는 어디, 누구인가요?
- 활동가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둘 곳이 마련된다면 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 당사자성이 중요시되며 정책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학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모임에서 시민연구자그룹의 필요성을 나누고 공감했다.
-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

활동가이야기주간
공동주최단체 기획프로그램

01 [일상마음팀] 청년활동가들의 마음건강은 어떨까?

모임주최자	일상마음팀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4.(월)
모임참가자	2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22		

오늘 당신의 마음은 화창한가요? "일터에서 고립감이 들 때도 있고, 무기력하거나 피로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나처럼 힘드니까." 문득문득, 활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닌 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아버린 때가 있었나요?

공익활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오늘도 부단히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건강 돌보기는 놓치고 있진 않은가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 조각들을 모아 청년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청년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기반 마련을 위해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 함께 우리들의 마음 조각들을 함께 연결해 볼까요?

02 [민주주의기술학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문화는?

모임주최자	민주주의기술학교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6.(수)
모임참가자	1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28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조직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직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우리 조직이 추구해야할 조직문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고민하는 구성원들이 조직 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지금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 워크숍 내용

- 마음열기 및 주제 도입 : 상호인사, 워크숍 안내, 조직문화 관련 질문게임
- 조직문화 톺아보기 : 우리 조직문화 점검하기 (걸림돌과 디딤돌)
- 새로운 조직문화 모색하기 : 새로운 조직문화를 위한 제안과 토론
- 제안과 토론 공유하기
- 참가자 회고

03 [동행]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모임주최자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7.(목)
모임참가자	3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20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야 활동가들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사회 : 류홍번 동행 운영위원장
인사말 : 염형철 동행 이사장
이야기마당 :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첫 번째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두 번째 :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야기꾼들

-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 이진홍 (익삭희망연대 사무처장)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 신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04 [빠띠] 이슈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모임주최자	빠띠		
지역	서울	개최날짜	2019.11.8.(금)
모임참가자	20명	모임개방여부	개방형모임
관련 링크	http://theconnect.or.kr/b/activistweek_meet/187813		

다양하고 안전하게 개방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는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보면 뭐라도 해보고 싶은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관심 이슈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막상 그런 커뮤니티를 찾으려고 하면 잘 없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빠띠는 다양하고 안전하게 개방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는 이슈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빠띠는 이런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건강한 민주주의에 핵심 요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곳이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빠띠는 누구나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툴킷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워크숍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툴킷과 워크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셔서 함께 고민 나누고, 같이 만드는 시간 가져 보아요.

제 3 장

활동가이야기모임주최자 네트워크모임 기록

이 장에서는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행사가 끝난 후 12월 1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야기모임 주최자들 간의 네트워크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 네트워크모임에는 전국 곳곳에서 모인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고, 이야기주간을 계기로 개최한 이야기모임에 대한 회고와 2020년에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정 단체와 활동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각 이야기모임 주최자들의 발표 내용

활동가 A

시민사회 청년활동가들의 마음의 상처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 31명에게 1,300여건의 리뷰를 받았다. 그 조사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snpo.kr)에 있다. 활동가이야기주간 때 활동가들과 함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여러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가이야기모임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고,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활동가 B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개최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일당독재가 오랫동안 유지된 곳이라 서울에 비해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소위 말해 어공들도 별로 없다. 이런 곳에서는 활동가가 나오기도, 의제별 활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구조적인 것들, 공익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이야기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다고 청년 의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공적인 비빌 언덕을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광주, 강릉, 부산과 같은 지역과도 교류를 하고 있다.

활동가 C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제가 협동조합에서 2년을 활동했는데 이런 대화모임을 개최한 게 한 번도 없었다. 평소에 협동조합 안에서 왜 이런 대화모임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제안을 해도 소극적이었는데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계기를 만들어줬다. 평소에 활동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늘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발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결방안을 포함해서 조합 안에서 이런 대화모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조합 안에서는 본인을 활동가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가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뭘' 이런 반응이었는데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서 '아, 나도 활동가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활동가 D

페미니즘 이슈와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 2018년부터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세미나의 구성 멤버들이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이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계기로 우리 멤버와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남성 중심의 노동 사회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전략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활동가 E

동네에서 82년 김지영들의 모임을 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알게 되면서 독박 육아에 대해 생각을 변화시켜줘야겠다,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을 하면서 관계가 더 끈끈해졌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게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 변하는 것을 글로 쓰게 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활동가 F

활동가 건강권포럼 이후에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으로 진행했다. 수면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청소년, 대안교육, IT쪽 등 다양한 참가자가 수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끝내지 못한 일, 자격지심, 상처받았던 일, 불안감, 초조감, 야식을 먹는 습관 등 심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불면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호흡을 측정해봤는데 일반 사람의 평균보다 가쁘게 쉬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했다. 말 그대로 숨 쉴 틈 없이, 숨 돌릴 틈 없이 살고 있었다는 자각들을 하게 되었다. 또 몸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자기 전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팁들, 심리적인 기술도 공유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내년에도 꼭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활동가 G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모임을 개최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20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해왔다. 우리가 나가면 단체는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활동가들이 모여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모든 지역 활동가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적절한 소득과 임금 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청년을 포함하여 새로운 활동가들의 유입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다. 이런 문제는 개별 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 활동가들은 회원들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데 주말 모임이나 회의가 너무 많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야근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단체는 격주로 대체휴무를 월요일에 번갈아가며 쓰고 있다. 근데 다른 단체는 이런 것조차 회원들의 눈치가 보여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려워도 어쨌든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주 4일 근무제 등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계속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활동가 H

우리는 활동가들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진행했다. 비록 2명만 모였지만 그대로 진행했다. 단체 소속은 아니지만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야기와 고민을 나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너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서로 표현을 못하기도 하는데 활동가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줬다는 것이 일단 너무 고맙다.

활동가 I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가들에게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개인적으로 자녀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아동·청소년 상담활동가가 되었다. 모임참석자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상담가로 활동하는 사람, 봉사 활동하는 사람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본인들이 아동·청소년 활동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주부여서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다. 왜 굳이 활동가라는 말을 쓰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본인들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들 상담가, 청소년상담가로 불려왔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건 조직에서 활동하건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활동가 J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로 그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정치 색깔이 바뀌었고,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실험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행정과 협업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거나 고민되었던 지점들이 있었다. 행정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변화'에 힘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언어가 다르고 방식이 너무 다르다. 그동안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과제가 활동가들에게 넘어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다. 그 도전의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떤 통찰을 얻었고 이런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가가 궁금했다.

활동가이야기모임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일로는 다 연결되어서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나 활동의 비하인드 이야기 등에 너무 목말라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언니 동생처럼 친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은 소통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제일 큰 공감대는 여성, 남성 활동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을 떠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속풀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활동 구조를 만드는 방법,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는 각자의 활동 범위들이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책임이 점점 특정한 사람에게 가중되는 방식이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몸을 계속 쪼개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라도 공통 역량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주 만나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내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대화모임 계속 가져보기로 했다.

활동가 K

여성, 농촌, 20대 세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진행했다. 처음에 20대 여성활동가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4~50대들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논의한 끝에 지역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이라고 보는데 활동을 해보니까 35세가 넘어가면 좀 말이 좀 안통하더라. 그래서 20대로 한정해서 모이자고 했다. 결과적으로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른들이 있다 보면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20대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좋았다. 대신 다른 세대와는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해보자고 했다. 농촌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굉

장히 스트레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능력이었던 것이 농촌에 있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려해주고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게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공감이 가기도 했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활동을 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영수증 없이 지원금이 입금되어서 굉장히 좋았다. 센터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다.

활동가 L

아이 낳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활동가 지원의 일환으로 이런 모임을 했었다. 그런데 같이 모임했던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 일하고 있지 않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안에서도 활동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 모임이었다. 활동가이야기 모임을 위해서 다른 단체에 있는 젊은 친구들, 이제 막 활동 시작한 친구들이 모여서 느슨한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자고 했는데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모임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게 안타까워서 이후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다. 활동가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설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고맙다.

활동가 M

지역에서 개최된 2개의 모임에 참여했다.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니 그 단체의

특성이나 상황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공된 질문지에 개인적인 질문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도 있고, 활동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그동안 서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워크숍에서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여기서 질문을 더 추가해서 짜고 있다. 모임을 개최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아서 좋았다. 활동가들이 준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도 좋았고, 결과보고서도 너무 간단해서 좋았다. 이런 모임 지원이 상설화되었으면 좋겠다.

활동가 N

지역에 시민단체 연대체가 있는데 매 달 만나서 회의만 하고 있다. 회의만 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았다. 마침 이야기모임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6개 단체의 10명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모임을 진행했다. 최근 조국 사태로 언론이 시끄럽기도 했고, 경기도에서는 모 방송국 본부장이 친일 발언과 혐오 발언을 해서 시끄러운 상화이어서 주제를 언론 바로보기로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언론 바로보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자리에 기자도 참석하여 언론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고, 활동가들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언론 관련 사안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의 꿀팁도 공유했다. 10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는데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과 90년대생 청년 활동가까지 참석했다. 회의만 했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자리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분기마다 모여서 각 단체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 안에서 공통의 고민을 가져보자고 했다.

활동가 O

여성, 노동,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활동 중이다. 특히 노조나 노동단체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많은데 간부급이나 대표는 결국 남자다. 조직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젠더 차별 문제와 여성 활동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개방형으로 하지는 않고 활동하면서 만난 노조와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했다. 이야기모임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모임을 했다. 계속 지원해준다면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연결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활동가 P

지역에서 단체의 차기 사무국장 역할을 할 만한 중간 활동가들, 청년 활동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5년 뒤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5년 뒤의 조직은 어떻게 될지를 주제로 했는데 지원조직과 단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사실 지역에서 이야기주간과는 별도로 작은 대화모임을 많이 진행했다. 그런데 그건 다 공개되

는 모임이었고, 예산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비공개로도 할 수 있었고, 서로 질문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서 더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모임을 열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후속모임을 한 모임도 있다.

활동가 Q

단체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백수와 예비 백수들이 모여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를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열었다. 이직이라는 게 영리기업과 다르게 비영리의 온갖 문제점과 고민이 함축적으로 나왔다. 지금 이직하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직문화 이야기도 나오고 비영리 현실 이야기도 나왔다.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를 벗어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주제가 나왔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이야기나누자고 했는데 막상 12월이 되니까 바빠져서 만나기 어렵다. 어쨌든 이직이라는 주제가 만만치 않고 이직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힘들고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돌보는 것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최했는데 그 주제까지는 다루지를 못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 모임 주최자가 온전히 감당하니 힘든 측면이 있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장을 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좋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활동가 R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활동가 대부분이 도시재생센터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지역에서 뭔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들 좋아했다. 또 오늘처럼 여러 지역에서 온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 자리에서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하는 일과 어려운 점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가 S

일할 맛 나는 조직 모습을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일하는 조직의 맛은 어떤 맛인가, 두 번째 질문은 원하는 조직의 맛은 무슨 맛인가였다. '조직의 재창조'라는 두꺼운 책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공유했고, 지금 조직에서 적용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마지막에는 내일 조직에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남은 이야기는 여유와 시간이었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탓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고, 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활동가 T

지역에 사는 1인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개모임을 주최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인 동료 2명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활동가로서 평소에 느꼈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직에서는 못하더라도 가정이나 친구나 본인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조직 구성원이 많은 경우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보니 속닥문화라든가 편가름이라든가 집단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속닥문화가 아닌 당당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 또 하나는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류를 욕하는 비주류는 과연 정당한가,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되물어보면 사실 똑같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다음에는 함께 활동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도 모여보고, 전국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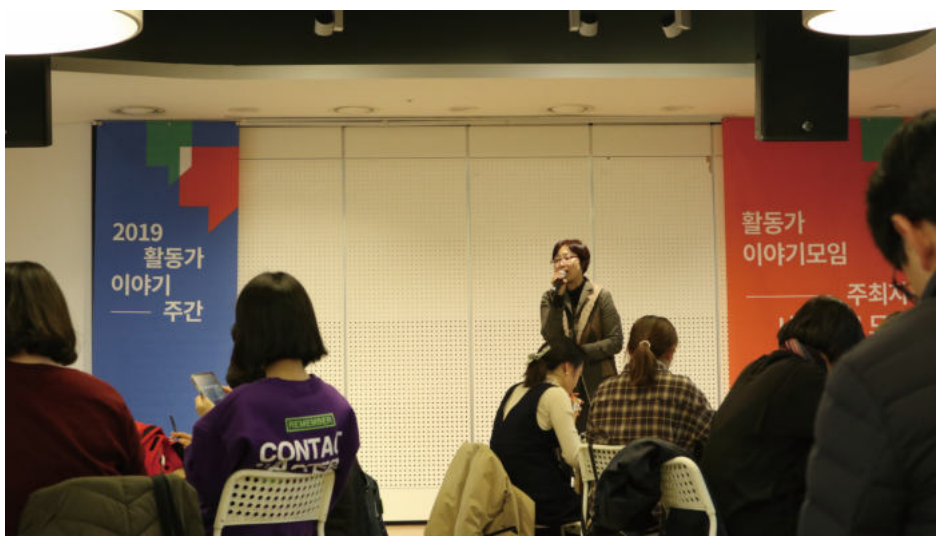
활동가 U

활동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을활동가였다. 그런데 이곳 네트워크모임에 와보니 정말 다양한 활동가들이 있는 것 가다. 마을공동체라는 느슨한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느슨한 조직, 동아리,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약간 경계점에 서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형태로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느슨한 마을공동체로 있어야 하나 계속 고민중이다. 이야기모임 주제는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였다. 참석자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마을 활동가는 무엇이고, 활동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꿈, 동행, 친구, 사랑, 보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결론은 제가 힘들게 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모임에서 서로 힘을 많이 받았다. 조직이 법인이 되건 지금처럼 느슨한 마을공동체로 있건 결국 맴버쉽이 중요하고, 그 멤버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이 난다.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가들도 만나고 싶고, 그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활동가 V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모임을 진행했다. 인생 곡선을 변주한 활동가 건강곡선 그리기를 했다. 이 날에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데 이 때 내 건강은 이랬고 감정은 이랬다는 것을 도화지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눈물바다가 되어서 첫 번째밖에 하지 못했다. 다음 모임을 기약해보자고 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안 나고 있다.



제 4 장

활동가 인터뷰

이 장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의 인터뷰 글을 부분 수록했다. [활동가인터뷰]는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이들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을 빌어 소개하는 프로젝트이다. 인터뷰 전문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다.

활동가 인터뷰	활동의 순도에서 그림이라는 언어의 순도로, 직면하며 밀어나가는 사람 - 우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래 한 곡이 떠올랐다. 전날 우영과 나눈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동안 마음속에 어떤 풍경이 드리웠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하고 잠든 터였다. 잠도 깰 겸, 노래를 틀어놓고 베개 속에 머리를 다시 파묻었다.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2010년에 발표한 〈졸업〉이라는 노래다.오랜만에 들어도 역시,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그대로 현실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는 가사다. 발매 당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노래는 막막한 현실을 절감하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감을 얻으며 생명력을 이어오다가 7년 후인 2016년 11월, 100만여 명이 거리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장면을 담은 뮤직비디오로 재탄생해 크게 주목받았다. 누군가는 이 노래를 그저 구직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두려운 젊은이들의 넋두리로 치부했겠지만, 뒤늦게 나온 뮤직비디오는 개인의 절망과 시대적 문제가 얼마나 뜨겁게 얽혀있는지를 귀와 눈으로 절절히 새기게 했다.

—

"운동권 세대가 있고, 글로 배우면서 시민사회를 접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후자에 속해요. 그런 시대를 경험한 분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 제가 교육할 때 쓰는 연대라든지 호혜라든지 그런 말이 그분들만큼 강도를 갖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문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쌓아갈 수 있죠. 그런 맥락을 켜켜이 쌓아서 활동을 언어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맥락에서 분리된, 일상을 사는 시민들에게는 그런 언어가 어느 순간 당위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맥락이 다 함축되어버려서.”

“그런 측면에서는 디자인, 카피라이팅 같은, 제가 광고 홍보를 공부하면서 익힌 것이 효용이 있더라고요. 당위로는 넘어설 수 없는 틀에서 이미지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비영리로 오고 나서는 대학 때 공모전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쓸데없었다는, 허비했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요즘 한 사이클 돌아서 다시 이미지가 중요하게 보여요. 전방위적으로 이미지의 압박을 받는 시대지만, 비영리에서 이미지, 미디어를 다루는 데는 영리의 세련됨을 추종하는 게 아닌 이쪽에 맞는 방식이 있을 텐데... 과거로 치면 의제를 판화로 대중에게 전달하던 민중미술 같은 것? 시각적인 문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방향은 뭘까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디자인 교육을 하고,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보려고 해요.”

“활동가이건 아니건, 일단은 이런 삶이면 좋다고 느껴요. 꼭 활동가가 아니라도 좋은 시민일 수는 있잖아요. 좋은 작가이자 좋은 시민으로, 딱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쌓아온 언어로 공론의 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그걸 순환시킬 수 있다면 바랄 게 더 없겠다, 그게 지금의 바람이에요.”

—

기회가 된다면 어깨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고 싶다. 세상에 외치고 싶은 메시지를 조심스레 붙들어, 순도 높은 그림의 언어로 담아내려고 혼자 스케치북 앞에 앉아서 그리고 또 그리는 우영의 나무들을.

| 인터뷰 전문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6805

활동가 인터뷰

불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 안프로

강릉의 조용한 해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안프로는 손님이 거의 없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로 일한다. 산불이 나면 도심에서 사용하는 소방장비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 사람이 일일이 산을 타고 다니며 직접 불길을 잡아야 한다. 이 임무를 맡는 특수진화대는 일당 10만 원에 10개월 계약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변변한 진화 장비도 없이 천 오백 원 짜리 일회용 마스크 하나 쓰고는 말 그대로 몸을 던져 산불을 끈다... 서울에서 독립영화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로 십년동안 활동해온 그는 그즈음 강릉으로 돌아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다. 쉼이 필요한 활동가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바닷가 너른 집 한 채를 얻어 1년 동안 천천히 구석구석 손수 꾸몄다.

—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창 하던 와중에 울산 현대차 5공장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감독들과 현장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다가 팀을 꾸렸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한 영상 프로젝트팀’, 줄여서 비철팀. 그때는 뭐 이름을 길게 만들기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참세상(진보적 미디어를 표방하는 인터넷 언론사)이 막 출범하던 때예요.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상 활동하는 친구들, 노동넷, 참세상 등등 결합해서 활동하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술자리에서 간혹 질문을 받곤 했어요. 안프로는 왜 이 활동을 하느냐고. 저는 베이스가 영상이니까 할 수 있는 걸 했던 건데,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알바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활동은 밑불 때기 운동 같은 거라고 대답했어요. 불씨가 안 꺼지게.”

“젊어서 에너지가 막 올라서 이 한 몸 바쳐서 남한 변혁운동사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결기를 다질 때도 있었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잠시 식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떨어져서 자기 선택에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자꾸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변절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고정된 건 아닌 듯해요. 그렇다면 그저 가만히 있다가 떠밀려서 변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바꿔나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

장장 세 시간 반에 걸쳐 진행한 안프로와의 대화를 곱씹다 보니 갑자기 헷갈린다.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주중에 그는 이 산 저 산을 타고 다니며 산불을 끄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잔불을 잡으려 비탈을 구른다. 그러다 주말에는 지치거나 혼란에 빠진 활동가들이 행여 마음 속 불씨를, 어렵게 이어온 운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조용히 쉴 공간을 제공한다. 불 때는 재료를 캐는 탄광에서 자라나, 온갖 운동의 현장을 지키며 불씨를 이어가려 애쓰다가, 이제는 천오백 원짜리 마스크 하나 쓰고 산불을 끄러 다니는 이 사람. 모르긴 해도, 어쨌거나 평생 불과는 뗄 수 없는 운명인가보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6869

활동가 인터뷰

일 벌이고 부추기는 사람 - 지숲

'여우책방'을 알게 된 건 페이스북 친구인 지숲을 통해서였다. 처음엔 재미있는 걸 하나보다고 넘겼다. 한 해, 두 해 지켜보며 '여우책방에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여우책방에서 다루는 생태여성주의 책들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책방이라는 점, 무엇보다 지숲이란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궁금했다. 글에서,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 사람이 묻어난다고 하지 않는가. 페이스북에서 접하는 소식만으로도 신나 보였다.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마음맞는 사람들과 책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고민들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 반, 나도 기운을 좀 받아볼까 하는 마음 반으로 찾아나섰다.

—

"2015년 과천 녹색당에서 책 읽기 모임이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란 이름의 모임이었어요. 맨 처음 읽은 책이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예요. 저는 거기서 에코페미니즘 개념을 처음 만났어요. 늘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심을 키워나가다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좋잖아요. 문턱을 낮추려고 모임을 열게 됐어요. 여우책방의 특성을 담아낸 모임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임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성주의 책 읽기 모임, 희곡 낭독 모임, 고전 읽기 모임, 시 낭독 모임, 낭독 책 읽기, 글 쓰기 모임… 거의 매일 오전 오후로 모임이 열려요. 거기에 생태나 환경에 대한 책 읽는 모임이 없어서 어떻게 마련할까 고심하고 있어요.”

“물론 힘든 적도 있는데 혼자 끙끙 앓는 일은 없어요. 회의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이거 저거 했으니까 돈 더 달라, 이때 이러저러해서 서운했다" 같은 말도요. 소리 지르고 싸운 적도 있어요. 말하다 보면 모자란 속이 다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도 사람들이 저를 편견에 가두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다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열린 태도로 듣는 분위기라서. 저희끼리 온라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댓글의 댓글을 수십 개 달며 언쟁을 벌인 적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는데...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걸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서로 안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어디쯤 서있어야 하는지. 이 이상은 절대 넘지 말아야 이 사람과 지속할 수 있다는 걸요. 적당한 거리와 방식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

그녀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타인의 욕구가 아니라 '자기다움'을 발현할 수 있게 들쑤시고 부추기는 일이라고 했다. 활동이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사람들과 나누냐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여우책방을 가꾸는 동료들과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함께 하는 힘을 조금 맛 본 기분이다. 이상했다.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6908

활동가 인터뷰

덕후 출신 정치활동가 - 김소희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보고 있는 아는 얼굴이 도봉구의원으로 출마했다. 투표 결과 8.22%(3,463표)를 보며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다가 내 일상에 치여 흐지부지 흩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 출마 경험이 어떻게 남았을까, 지금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를 만났다.

—

"재미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개인취향이 있듯이 정치취향이 있는 정치요. 그동안 제도와 시스템에서 사고해온 것 같아요. 정당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정당에서 왜 그런 걸 해?' 할지라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플라스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제도는 물론이고 사람들 인식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물정책을 논의 하듯이요. 평범한 사람도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요즘은 BTS를 좋아해요. '얘네가 왜 이렇게 떴지?' 궁금해서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을 알고나니 미래당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3대 대형기획사 소속이 아닌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한 모습이 거대 정당 사이에 있는 원외정당 ‘미래당’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어요. BTS가 뜬 건 누구나가 자기 얘기라고 느끼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멤버들 자신의 이야기로 노래가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공감을 일으켰어요. 게다가 VLIVE,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들의 일상이 보이니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원동력은 사실 사람이에요. '미래당 정체성이 뭐지?'고민하다가 결국 여기 모인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자원활동으로 참여해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미래당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출마를 하겠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경험이죠. 물론 활동을 지속하려면 계속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정치는 어떨까. 꼭 우리만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요?”

–

여러번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각인된 '정치'가 좌절의 경험으로 남아서인지 약간은 무겁고 긴장된 상태로 미래당 사무실을 찾아갔었는데 웬걸, 실컷 웃었다. 스스럼 없이 가볍고 시원해졌다. 원래 아는 사이라 친근하기도 했지만 경계를 허물고 견고한 벽의 틈을 내려는 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친화력 덕분일 것이다. 구의원 출마경험을 진득하게 얘기하다가도 BTS가 대화의 주제가 되자 랩처럼 빨라지는 속사포 말들에 빨려들어갈 뻔했다. 정치의 기본(활동의 기본이기도 하다)은 주변에 대한 관심, 뭔가 해보겠다는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계의 BTS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의 정치가 기대된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6847

활동가 인터뷰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만큼 해 나가는 사람 - 이민주

얼마 전 내가 직접 만난 어느 90년대생 활동가의 이야기로 눈을 돌린다. 일부러 끼워 맞춘 개연성이 아닌 생생한 삶의 경험이 날것으로 담겨 있어 다시 들어도 신이 난다. 청년이 꿈으로 삼기에는 초라하다며 모두가 탄식하는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삼았다가, 청년은 모두 떠나고 없다는 농촌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공들여 하고 있는 경력 5년 차 '중견' 활동가. 충청남도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팀장으로 일하는 이민주는 현재 이십 대 후반이다.

—

"졸업 후에 학교 추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턴을 했어요. 집에서 다녔는데 6개월 기간이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떠나야 하나, 서울로? 아니면 지역에 그냥 남아야 하나? 그런데 지역에는 직장이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군청 도농교류센터라는 곳에서 공고가 뜬 거예요. 소통과 홍보,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같은 되게 다양한 내용이었어요. 거기 지원해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스물 두세 살 때."

"도농교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못 느꼈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 지역에 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우리 지역이 이런 게 많구나, 청양이 가진 자원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일하고, 그다음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청년활동가로 공주에 있는 사회적협동

조합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마을만들기 센터가 문을 열면서 충원할 때 다시 청양에 와서 지금까지 2년째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존경스러웠던 리더는 학습하는 리더였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의만 하거나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면 똑같은 수준에 머물기 쉽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료 중에 자기 업무가 소통인데,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서울에 배우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걸 배우고는 거기서 만난 강사님을 지역에 모셔다가 청년들이 배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혼자 일할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런 동료들이 있고 조직에서도 공부하도록 지지해주니까 재미있고 좋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들과 같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

그날, 해가 천천히 기우는 도립대학교 앞 카페테리아에서 나눈 대화는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 그 어딘가에는 한순간 눈이 뜨이는 극적인 경험, 그 나름의 에피파니(Epiphany)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다 어느 순간 넘쳐흐르듯,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인 좌절과 성취의 경험이 어느 순간 사람을 훌쩍 성장시키는 것에 가까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계기나 강한 결심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작든 크든 끊임없이 자기와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만큼’ 해온 한 사람의 성장기. 이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느낀 그 나름의 극적인 감동을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어느 90년생 활동가에 관한 보고서로 담아 보낸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110

활동가 인터뷰	평범한 일상을 지키며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 - 박진옥

거의 십 년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일하던 때에 처음 만났던 박진옥 활동가는 현재 무연고사, 고독사 등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을 기리며 사회적 장례지원을 하는 단체 '나눔과 나눔'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더위가 시작되려는 여름날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마흔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때쯤 인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고, 장애인,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앰네스티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거죠. 이럴 때는 재충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진학해서 인권과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지금은 박사과정 공부 중이에요. 죽음과 장례 관련해서는 철학이나 산업적 측면이 아닌 현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네스티 활동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변화의 흐름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조직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은 벌써 30년 해 온 거거든요. 한 캠페인을 10년 지속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30년 걸려서 결국 국제연합에서 조약을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총기, 무기가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한 인권운동가들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무기거래통제라는 방향을 만들어 냈고, 그 의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 캠페인을 한 다음에 조약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그 조약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예요. 조약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꾸준히 변화 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죠. 그 사이에 사람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의제와 캠페인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사회를 변화시킨다는게 한순간에 되지 않잖아요. 50년, 100년 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걸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야죠.”

–

지속해나간다는 것, 그것은 시작한 사람들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다. 시작할 때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섬세하게 조율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는 역시 다른 사람이다. 영리/비영리, 상근/자원활동, 직위나 나이가 주는 상하 관계, 이런 경계를 뛰어넘기란 어쩌면 자기 내면에 드리운 불안과 혼란의 선을 넘는 데 비하면 훨씬 더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동료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게 그 선을 뛰어넘을 용기를 심어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그동안 박진옥이 그래온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어떤 경계든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부디, 머지않아 그의 일상에 여유가 돌아오기를. 그래서 더 많은 만남과 대화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134

활동가 인터뷰

통영 바다를 닮은 활동가 - 최광수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닮는다. 말투와 억양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상대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번 대화가 그랬다. 통영의 드넓고 푸른 파다가 온화하게 펼쳐졌다. 최광수 박사는 전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해양환경공학과 교수이자 통영, 거제, 고성을 아우르는 지역신문인 '한산신문'에 통영을 주제로 매주 1편의 글을 기고한다. 현재 통영에서 '통영시민학교'를 열어 지속가능한 사회, 삶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005년에 학생들과 '빈그릇 운동'을 했어요. 그 시기 유엔대학이 선정하는 UN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2019년 현재.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가 만들어졌어요. 센터 사무국장이 저보고 위원으로 함께하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라 동의했죠. 지금도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참여하고 있어요." 빈그릇 운동이요? "'빈그릇'도 운동이 되냐는 얘기죠? (웃음) 말 그대로 빈그릇을 하자, 적당히 먹을 만큼 덜어 남김없이 먹자는 운동이에요.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먹는 습관 바꾸는 게 참 어렵죠. 대학에서 환경, 생태분야를 연구하면서 내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사단법인 에코붓다에서 빈그릇 운동을 함께 기획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통영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빈그릇 운

동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죠. 흔쾌히 동참해준 학생들 5-6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교내에서부터 통영에서 행사만 열었다 하면 빈그릇 캠페인을 했어요. 통영을 헤집고 다녔어요(웃음). 이렇게 시작한 모임이 에코캠퍼스 동아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환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인류의 미래를 따져보았을 때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영에 '통영시민학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에 시작했어요. 올해로 3년이 됐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경제와 같은 거대담론을 주제로 공부했고요. 최근에는 통영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했어요. 앞으로는 생태문화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에요. 생태와 맞물린 인간의 삶을 문화로 접근하려고 하죠. 보통 숲해설, 바다해설은 하나하나의 물체나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넘어 인간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폭넓게 접근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

통영바다는 신비롭다.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부분이 다르다. 항만에 서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바다와 어우러진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탁 트인 광활함에 속이 후련하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통영 바다는 바다의 수많은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최광수 박사가 말하는 통영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파도가 치고 바다가 흐르듯, 생활에서부터 실천하려는 의지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맞물려 갖가지 활동으로 뻗어간다. 어디에 속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전해지는 대화였다. 그리고 신기하게, 나도 통영이 좋아졌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6954

활동가 인터뷰

호기심 많은 활동가 - 이파람

이파람은 잎새와 바람을 합친 이름이다. 서른 살이 되던 해 자립을 꿈꾸며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 나는 손맛이 들어간 자그마한 장터에서 이파람을 만났다. 떡갈나무 잎으로 곱게 포장한 현미 쑥설기, 갈대 빨대, 그림엽서와 책.. 이파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떡갈나무 잎을 뜯으러 산속을 헤매다가 멧돼지를 만난 일, 갈대를 꺾어다 500개 가까이 빨대를 만든 일, 그녀의 그림과 이야기를 엮은 책 하나하나에 자연의 흐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삶 속에서 자연스레 활동하는 그녀가 궁금했다.

—

"되도록 비닐 포장을 피하고 싶었어요. 방앗간에서 비닐봉지에 하나씩 포장해주잖아요. 대안을 찾다 보니 '비닐이 없던 옛날에는 떡을 어떻게 보관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떡갈잎으로 떡을 싸는 풍속이 있더라고요. 떡갈잎에는 항균 물질이 있어

밥이나 떡을 싸 두면 더운 날씨에도 쉽게 쉬지 않는대요. 바로 이거다! 했죠. 손이 많이 가요. 산 깊숙이 올라가서 떡갈나무 찾아 잎 뜯어야지, 떡을 싸야 하니까 두세 번 빡빡 씻어야지. 바짝 말려야지. 습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미쳐서 이걸 하지 다른 사람이라면 못할 거란 생각도 했어요. 역설적으로 비닐이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어떻게 비닐을 만들었지.(웃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술도 빚어야지, 빵도 구워야지 한과도 모래에 튀겨봐야지. 저희 동네 근처에 유명한 한과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뜨거운 모래에 한과를 튀겼대요.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천연염색도 하고 싶고 그러려면 쪽도 키워야 하고요. 책으로 본 것들,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다더라, 비닐과 플라스틱 없는 시절에 이렇게 해봤다는 걸 읽으면 꼭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요.... 하루를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요. 아직 도시에서의 습성이 남아서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서 농사일하려면 볕이 뜨거워서 '에잇 오늘은 안 되겠다'해버려요. 이제 밭이 가까운 환경에서 살게 됐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밭이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하고 아점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일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꾸고 싶어요."

—

여름여행으로 간 강릉에서 이파람네에 놀러갔다. 함께 사는 냉이와 배추(고양이 두마리)의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파람 집은 고요했다.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이 풀벌레 소리와 섞여 깊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가만히 생각했다. 바라는대로 살아가는 움직임을 어떤 '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 일상의 부분을 포착하는 관찰력,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루하루의 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이 기억난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160

활동가 인터뷰

들썩이는 시장의 에너지 - 낑깡

'마르쉐친구들'은 마르쉐라는 장(場)을 여는 시장기획 집단이다. 몸을 쓰고 손을 움직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초대한다. 그리고 마르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 나이엔 이걸 해야 하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22살에 대학을 자퇴하고 일을 시작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과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시장 기획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낑깡을 만나자 시장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

"하면 할수록 저는 시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맞아요. 이것저것 조정할 것도 많고 바쁘고 힘들지만 내 롤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이 쌓여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 좋아요."

"환경 운동하다가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을 만났어요. 과일류는 병해충, 날씨에 민감해요. 농약을 안 쓰셨는데 어느 해엔 병해충이 심각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요. 농부님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아요. 이 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시장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 원동력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여는 것. 지금도 3-4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마르쉐에서 산 채소들로 해 먹는 반찬 모임, 새로운 음악을 들을 기회가 되는 음감회, 최근엔 하모니카 모임이랑 망원동에서 농구모임이요. 모임을 열고 싶은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게 안타까워요(웃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서울에서 월세 내면서도 '잘'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서 쓰고 직접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지금은 뜨개질 밖에 못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의식주를 잘 꾸리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올해는 뭐라도 녹음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9월이네요.(웃음) 기록하는 의미로써 남겨놓고 싶어요. 나만의 창작을 하려고요."

–

10대에서 20대, 앞자리가 달라진다고 삶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에너지답게 선택하며 살아간다. 학교 밖 청소년, 여행, 자원활동, 사회학, 대학 자퇴, 마르쉐, 친구들과의 모임... 올해로 25살인 그녀의 경험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마르쉐에서 길고 오래 일하고자 주 3일로 전환한 것이 놀라웠다. 동료들의 배려 없이는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주도적인 면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낑깡이 가진 가볍고도 명쾌한 에너지는 곧 축제에서 느낄법한 '들썩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 에너지를 바탕에 두고, 세 가지 축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내가 맡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실험하기, 일 하지 않는 시간은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모임 만들기, 마지막으로 나만의 창작활동 이어가기.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241

활동가 인터뷰	이상을 쫓기보다는 내 속도에 맞게 살고 싶은 사람 - 박내현

재개발이 머지않은 동네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여럿이 모여 먹고, 대화하고, 공부하며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이문동 공동체 도꼬마리. 처음 그 공간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사람들은 대체 어쩔 작정이었을까? 나는 익숙한 냉소를 떨쳐내고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안은 채 이문동에 찾아가 공간 제안자 중 한 사람이자 지역 활동가인 박내현을 만났다.

–

"좀 쉬면서 천천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마을 관련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고. 그때가 서울시에서 한창 마을공동

체 사업을 할 때였어요. 협동조합을 양성하면서 동네마다 관련 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잘 모르는 분야라 마을공동체에 관한 책을 좀 찾아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사회운동이라는 게 갖는 지향이 있잖아요, 노동이든 여성이든 인권이든. 하지만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눌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 고민을 했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런 걸 나누지 못하면서 시청이나 광화문 가서 집회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곧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집단이 존재한들 주변에서는 관심이 1도 없다면? 그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지점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마을에서 활동하면 사람들과 천천히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책 몇 권 열심히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시험 보고 면접 봐서 선발되었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집중해서 속도를 내고 싶은 부분을 잘하면 되고,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때 내 상태에 따라서 거절하면 되고. 그렇게 뭘 정해놓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요. 활동가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상'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친절하다던가, 쉼 없이 노력한다던가, 어울리지 않게 느슨하게 사는 척 한다던가. 그런 '상'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

그레이버가 주장했듯, 우리의 일상은 흔히 말하는 합리적 거래 못지않게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인 행위와 관계로 가득 차 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는 상상력, 그리고 이미 도처에 존재하는 대항권력이 드러날 공간을 만드는 행위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 나아가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205

활동가 인터뷰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활동가 - 임지민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노동상담과 건강교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만났다.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했다. 그녀는 초창기 멤버로 7년째 일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가는 동력이 궁금했다.

–

“일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익숙한 이슈는 '노동'이었어요. 제 편견으로 돌봄은 딱 잘라서 답이 보이지 않는 애매한 영역이라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돌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멋있는 사람이 많구나, 자기 에너지로 한 사람을 지탱하는 사람들이구나.' 대단하다 느꼈어요. 지금도 인상 깊게 남은 분이 있어요. 토론회 때 발언자로 오시기로 했는데, 전날에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담당하는 어르신이 임종을 맞으실 것 같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고. 근무시간이 끝났지만 병원에 있겠다고요. 근데 다음날 토론회 때 시간에 맞춰 오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

니 어르신이 새벽에 돌아가셔서 마무리하고 왔다고.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어르신도 최선을 다 했고 나도 어르신이 마지막을 보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 노력했다는 말씀이 오랫동안 남아요. 누군가의 죽음이나 마지막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르면서 연결되는 건데요. 조직 운영자들은 새로 진입하는 다양한 이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자 역할을 할 활동가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건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갈등을 겪거나 그만두는 걸 보면 안타깝죠. 더 이상 몇몇의 전문가, 이전 운동 경험을 가진 소수의 명사만으로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활동 경험이 없어도 관심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영리로 들어오는데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업무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촉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부재하지 않나. 저희 기관만 해도 부족함이 많고요."

—

활동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혹은 누군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란 점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에 질문을 던진다. '이건 문제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어 차근차근 풀어간다. 당사자이기에 겪는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에 보이는 관점이 넘나 든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이 곧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 결국 존엄하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하는 개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너도 나도 자신을 뽐내고 알리기 급급한 사회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대하게 느껴졌다. 요양보호사도,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덕분에 또 하나 배웠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496

활동가 인터뷰

지역의 고유함을 담는 활동가 - 장재원

옥천을 알게 된 건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옥천신문'이란 지역신문이 있는데 1989년에 만들어져서 지역사회를 밀도있게 담는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역단위로 번진 움직임이 언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놀라웠다.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공간,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니.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새롭게 다가왔다. 언젠가 가보고 싶어졌다. 시간이 지나 다른 친구에게 〈월간옥이네〉를 선물받았다. 옥천의 땅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잡지였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연인 모양이었다. 2017년 가을, 우연한 기회로 〈월간옥이네〉 취재를 따라 나섰다. 옥천에 남아있는 오래된 산성에 대한 취재였다. 높지 않은 산을 오르니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 펼쳐졌다. 아름다웠다. 자연만이 아니다. 옥천에서 만난 사람들이 두고두고 떠올랐다.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반겨주던 〈월간옥이네〉 편집장 재원씨(현재 '고래실' 편집인, 기획협력국장) 이야기가 궁금했다. 이참에 만났다.

—

"학창 시절엔 서울 가는 게 목표였어요. 대학생 때 스웨덴으로 연수를 가거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던 곳이 다 수도가 아니었는데요. '지역에서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알았어요.

또 옥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구나' 알게 됐죠. 지역에 할 일이 많다는 것도요. 그래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지향점은 지역이라 해도 중앙지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역에서의 쓸모를 생각해요. 개인적인 관심과 연결되는데요.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학창 시절에 홍세화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의식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중 중요한 두 가지가 교육과 언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언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전공도 했고요. 한편으로 늘 교육문제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과정이에요. 옥천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꾸준히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느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요.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농민 운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꿈은 내가 발 딛고 있는 옥천의 고유함을 주목하고 발견하는 활동으로 연결된다. 옥천에도, 활동하는 개인에게도 쌓이는 것들이 보인다. 고래실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둠벙'에서 만난 활기찬 얼굴들, 옥천 농부님들(옥천살림)이 직접 만든 식당과 맛있는 점심, 언제든 옥천에 내려오라는 활동가분의 권유, 뿌듯함이 느껴지는 여러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꾸준히 활동하는 힘은 어디 멀리 있지 않다. 만나는 곳곳에 담겨있다. 든든해지는 만남이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981

활동가 인터뷰

배우며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 박운정

만나면 늘 표정이 밝다. 사회생활을 하느라 몸에 밴 제스쳐도 아니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파고드는 친밀감도 아닌, 딱 적당한 거리감으로 주변을 자연스레 데우는 사람. 박운정과 처음 만난 건 아마도 세월호 가족을 위한 목도리 뜨기 모임이었던 듯하다. 그다음 떠오르는 건 술빚는 모임에서 직접 담갔다며 꺼내 보이던 예쁜 술 한 병, 그리고 어느 날 히말라야 트래킹을 간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커다란 배낭 사진 같은 것들이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크다.

–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본 것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풍물 배우던 때도 알려주던 대학생들이 막 학습을 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워낙 엄혹한 시절이라 가보면 늘상 데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성차별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었어요. 평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삶의 균형이랄까? 사회 문제나 정치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누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게 흥미로웠던 거예요.”

“단체를 그만두어서 소속이 없어졌지만 지난 활동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접점은 있다

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도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두렵긴 하더라고요. 혼자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뭘까? 무엇을, 누구랑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할 때 먼저 한 선배가 손 내밀어줘서 같이 일해보기도 했어요. 같은 단체에 있다가 저보다 먼저 그만두고 혼자 활동하던 분이었어요. 그 기간에 배운 것도 많았지만 서로 다른 점도 느끼고 해서 처음 약속한 1년을 딱 채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 이것저것 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차차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랬죠. 지금의 민주주의 기술학교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는 '현장'이라거나, 자기만의 경험 같은 게 분명 필요한 점이 있긴 해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내가 배워서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가 없고, 다 나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가라든지, 뭐 어디의 대가고 선수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불편해요. 제가 그렇게 소개받을 때도 너무 오그라들고."

"네. 저는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단체를 그만둔 뒤에 그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

그렇게, 어느덧 이십 년 차를 훌쩍 넘긴 활동가이자 퍼실리테이터가 된 박운정은 요즘 참 바쁘다. 단지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다. 연말에 또 히말라야로 가기 위해 항공편을 끊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지켜본 경험에 비춰보면,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 틀림없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7585

활동가 인터뷰

목포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 - 배수진

내가 수진씨를 알게 된 건 서울시 청년허브에서였다. 청년허브에 근무하며 청년참(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때, 지원받는 커뮤니티 담당자였다. 그녀는 부암동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임을 열었다. 이웃이 있는 게 좋다고 했다. 동그란 눈을 반짝거리며 시원시원하게 웃었다. 재미있어 보였다. 활동을 들여다본다는 핑계로 몇 번 놀러 갔다. 방이 하나 빈다고 해서 부암동에서 살고 싶던 나의 로망을 일주일 동안 실현하기도 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 그 사람이 깃든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두고두고 남았다.

—

“내가 하는 것들을 수정해야 했어요. 지원사업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생할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지원을 받으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자립하려면 수익이 생겨야 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한 스타트업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했죠.'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과 목포를 알린다는 두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목포를 씁니다' 출판사업과 선물가게를 만들었어요. 돈은 잘 안 돼요. 지역이 좁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열심히 해봐.'라고 하든지, '쟤 뭐 하는 거야? 누구 편이야?' 하는 느낌도 받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나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 도시에 흥미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 기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변화하고요. 무엇보다 여기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적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서로 소통하며 사는 것. 느슨하고 느긋한 공동체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부암동에 오래 살았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내가 살았던 동네는 남들도 살고 싶은 동네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서 다양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요. 이런 것들을 재미있다고 느껴요."

—

목포에 오기 전까지 막연했다. 뉴스로 접한 목포의 이미지만으로는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다가, 다시 고향에서 삶을 꾸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역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명료하게 정의되는 '활동'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가는 일상, 지역 주민들의 반응, 외부 자원, 목포를 다룬 뉴스를 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포에서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가, 삶을 지속하려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 질문이 끊임없다. 혼란을 혼란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지 모른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가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재미있어하는지 아는 수진씨가 목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085

활동가 인터뷰

비영리를 좋은 직장으로 삼은 사람 - 권난실

'미디어'와 '다음세대'를 키워드로 공익활동을 기획, 지원하는 다음세대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권난실은 십수 년째 이어온 비영리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대체로 균형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어떤 '거대한 사명감' 같은 건 없고, 그냥 운 좋게 좋은 직장을 얻어 만족하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 표정에서 망설임이나 아쉬움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건 처음이라면서도, 이것저것 의심스럽게 찔러보려 드는 나의 궂은 질문에 솔직하고 겸허하게 답해준 권난실의 이야기는 애초에 내가 가졌던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흥미롭고 신선했다.

–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차도 많고 그런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 갔다 오면 되게 긴장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다 못해줄 때 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좋았던 것은, 한 사업을 5년 동안 맡아서 서로 계속 만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그분들도 다 다른 데 계시지만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가 20대에,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나서 이제 40이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 구성원이 조직에 있는 동안 좋은 일 경험을 해서 나중에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조직에 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어도 2~3년은 일하면서 잘 성장해서 자기의 힘은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떠나더라도 거기서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하면 되니까요."

"어떤, 거창한 수준에서는 아니고 그냥 지금의 제 역할,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내키지않는 건 다른 직원에게도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나 자신도 내키지않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일 자체의 성격이든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든. 비영리 일은 설득의 과정인 거 같아요. 그런데 내키지않은 일을 나랑 분리해서 진행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리더의 위치에 와서 더욱 생각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난실은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중국 춘추시대 유학자인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의 한 구절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처음엔 갸우뚱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되려 타인을 억압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개인이나 조직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해도, 활동에 깊이 몰입하다보면 목적이 중요한 만큼 그 수단도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거나 외면하기 쉽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약화하고 혁신을 키워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영리 영역의 현실 속에서, '기소불욕물시어인'에 기반해 권난실이 보여줄 새로운 리더십은 과연 어떤 색깔로 드러날지, 설렘과 기대를 숨길 수가 없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143

활동가 인터뷰	운동을 매개로 단단한 삶을 이야기하는 활동가 - 데조로

최근 데조로샘의 책 '여자는 체력'이 출간됐다. 책을 읽으며 공감했다. 운동을 매개로 단단한 삶을 이야기하는 활동이란 생각이 들었다. 살림의료협동조합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공간을 연다는 소식을 접하며,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었다. 약간의 팬심도 섞였다. 운동하고 글쓰는 '멋진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설렜다.

–

"이 책을 3년 전에 계약했는데 그 이후로 여성과 건강에 대한 책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운동하는 여성들의 에세이에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편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뭐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운동과 자기방어를 가르치는 건강운동관리사(질환이나 체

력적 특성 등의 이유로 무슨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안내자이자 트레이너)로서, 운동하는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을 실어야겠더라고요. 자기 몸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여성과 건강, 공동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볼 계기가 됐고요. 사실 실패도 많았어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했고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내가 제공한 트레이닝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그랬을 때 괜찮다고 다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뢰에 보답해야겠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니 이런 무리가 있다거나, 아팠었는데 이걸 하니 나아졌다는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트레이너로서도 성장했고요."

"자기방어 훈련은 단순히 호신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다양한 움직임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발견해나가는 태도가 결국 자기 삶에 녹아들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

운동에서 시작해 '커뮤니티'로 마쳤다. 살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남았다. 키워졌다니. 함께 한 사람들의 품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숲을 오래 산책했다. 가을을 느낄 겸, 대화를 곱씹을 겸 시작한 걷기가 운동이 되었다. 살짝 땀이 나자 다리가 움직이는 걷는 행위에만 집중이 됐다.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간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운동 효과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움직임이 귀하게 느껴졌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160

활동가 인터뷰

시간을 쌓으며 자기를 발견해온 사람 - 윤지현

2014년 겨울, 우리는 커다란 펼침막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 서 있었다. 시의 제안으로 시작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권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시민 백여 명이 반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을 이대로 묻히게 할 수는 없었던 시민들은 원래 선포식을 할 예정이던 12월 10일 세계인권헌장 기념일에 맞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때 회견문 준비와 언론 소통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활동가인 윤지현이 맡았다. 준비 과정과 현장에서 보여준 그의 차분한 판단력과 실무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

"매우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일은 괜찮은데, 여기 시스템을 잘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100명이 넘어요. 거리모금팀만 70여 명이고 내부에서 전화를 받거나 행정을 하는 분들까지 구성도 다양하고요. 그중에 인터내셔널 포지션(외국인 파견 직원)은 저 하나인데, 제가 이 부서 전체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매일 너무 일이 많이 벌어져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바빠요. 야근은 잘 안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퇴근 후에도 메시지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앰네스티에서 일하는 동안 비영리 조직의 규모와 의사결정에 관해 많이 고민했어요. 국제 조직인 데다 회원이 많고 모금을 열심히 하는 곳인데요, 강한 활동성을 가지고 평화운동이나 당사자 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분들이나 풀뿌리성을 주장하는 분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두 포용하고 가면 좋겠지만, 맨날 앉아서 논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다음 단체로 이직할 때는 조직 체계에 맞게, 사명을 위해 일한다는 지향을 가지면서도 일도 프로패셔널하게 하고 급여도 프로패셔널하게 받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활동가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소위 말하는 '현장'에 있어야만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활동가라는 걸 직업으로 평생 하면서도 거기서 어떤 활동성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요. 제가 어떠한 일의 가치를 위해, 그 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의문을 품고 일한 적도 많아요. 특히 모금할 때는 직업인이라고 느껴요."

—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지만, 활동가의 정의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활동가로 살겠다 선언한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마음에 떨어진 씨앗 한두 개가 어느 틈에 싹을 틔웠다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때론 꺾이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자라난다.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윤지현이 말했듯,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자기 자신, 자기 몸과 내면의 건강을 돌보며 꾸준히 일상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입체적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줄 새싹을 틔우려 계속 시도하는 것. 그게 최선이 아닐까? 아주 천천히, 그러나 치열하게, 시간을 쌓으며 자기를 발견해온 사람. 윤지현의 일상이 그렇게 내내 건강하기를 바라며.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201

활동가 인터뷰

유쾌하게, 일관성있게 살아가는 활동가 - 희도리

내가 직장을 그만둔지1년이 다 되어 간다. 2020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20여 년을 걸어온 희도리님이 생각났다. 여성민우회, 아름다운재단, 한국인권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만화를 읽고 만화가를 조명하는 활동까지. 나무로 따지면 나이테가 진하게 그려질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을 경험했다. 조직에서 배운 것, 한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궁금했다.

–

"대학 때 여성학 강좌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고민한 것들이 정리되고 벼락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고 좋았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114에 전화해 여성단체 연락처 알려달라고 한 뒤 찾아갔어요. 그게 동북여성민우회였어요.(웃음) 민우회는 직업이라기보다 정체성이에요. 저를 여성으로 살게 해 준 곳이자 저의 언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에요. 일과 삶이 구별되지 않는 8년 덕분에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민우회에서 아름다운재단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여성민우회는 I(나) 메시지가 중요한 단체거든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모여서 우리라는 꽃다발을 만들었다면 아름다운재단은 WE메시지였어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는. 저는 '우리'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만 있었지. 찾느라 헤맸어요. 그러면서 I 도 필요하고 WE 도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를 갖는 게 중요하구나 느꼈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WE를 고민하는 훈련이 됐어요. 무엇보다 여성주의에서 배웠던 주변성, 즉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남아요. 세상을 풍성하게 보는 관점이죠. 민우회에서 선배들이 저를 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어떤 기백, 기세 같은 걸 배웠달까. 생각보다 큰 자산이에요.”

“저는 중간지원조직을 좋아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업들이 잘 맞아요. 규모가 커서 만져지지 않는 사업보다 나도 같이 뛰는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하지만 공익활동이 사이즈를 키울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다만 저는 작지만 구체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일이 좋아요. 고속도로를 만들기보다 국도를 만들고 안에 휴게소도 만들고 매점도 만들고 여기엔 정원도 있어야 하는 식으로요.”

–

인터뷰에서 나는 주로 잘 듣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다. 이번엔 누구 인터뷰인지 모를 정도로 내 이야기도 실컷 했다. 희도리님 이야기를 통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들이 올라왔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과정에서 무얼 배웠고, 어떤 부분에 괴롭고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과 잘 맞고 어려운지 직면해야 하는 거였다. 인터뷰 후 며칠을 흘려보냈다. 나눈 대화가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이 있어 다행이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261

활동가 인터뷰

자기 결대로 꽃피고 싶은 사람 - 술술

술술과는 더이음 운영위 모임을 통해 알게 됐다. 시원하게 웃는 미소와 느긋한 말투,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듣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느꼈다. 술술은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에서 일한다. '마음의 씨앗'은 마음을 돌보려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한 힘으로 자신의 일상에서 중심 잡을 수 있게 지지하는 곳이다.

–

“돌아보면 다양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일관되게 그 선상에 놓여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교육 분야는 '민주시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활동하는 장을 열거나 교사를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콘텐츠를 다룰 수 있어 좋았어요. 뭔가가 딱 정해져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교육사업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담기는 그릇이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이건 좋은 일이야.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수월하지"하고 일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일을 수월하게 잘하기 위해서죠. '마음의 씨앗'에서 일하면서는 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기 위해 일을 하는구나. 일이라는 게 있어서 만나는구나. 서로 깊이 연결되기 위해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막 얘기하자면 가슴이 꽉 차고 든든해져요. 일상에서 어떤 자리는 내가 긴장해야 해요.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불안을 가진 채로 살잖아요. 둥글게 둘러앉는 공간에서는 내 안에 어떤 깊은 지점에 불이 켜져서 그 상태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자신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는 철학 위에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변하는 만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훨씬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내용 중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제 결대로 꽃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 결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요. 무리하지 않고 이성보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죠. '내면의 교사'를 부를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산책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

연신 끄덕거리며 대화했다. 공감가는 이야기가 많다. 그날 그날 날씨와 몸 컨디션, 주변 환경에 따라 수만가지의 나를 만난다.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는지 살펴보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든 중심을 잡고 싶다고 생각한다.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사건이란 불현듯 벌어지니까. 술술과의 대화로 나로 살아가는 근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근력을 키우는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 나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친구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열어야지, 마음 먹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heconnect.or.kr/b/activist_interview/188306

활동가이야기주간2019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0.1.31.
발행인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주관
더이음 | 아름다운재단

공동주최
더이음 | 아름다운재단 | 빠띠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 인권재단 사람 | 민주주의기술학교 | 사단법인 시민

협력
광주NGO센터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부천희망재단 | 서울시NPO지원센터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
천안NGO센터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충북NGO센터

공동주최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

협력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천희망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북NGO센터

더이음 연결 · 관계 · 변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